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etoday.co.kr

제277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구광모號 LG '젊은 피' 대거 수혈 8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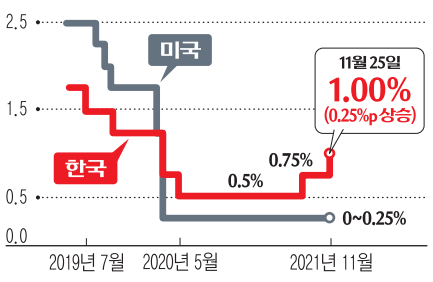
코스피(25일) 2980.27(−14.02P) ▼
코스닥 1015.66(−4.47P) ▼
환율(달러당 원화) 1190.20(+3.7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1.933%(−0.080%P) ▼

한은, 기준금리 1.0%로… 내년 초 추가 인상 예고

20개월만에 막 내린 제로금리

8월 이어 또 0.25%P 추가 인상
이주열 "가계부채·인플레 대응"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 유지
美도 금리 조기정상화 나설 듯

한미 기준금리 추이 ○ 한국 ○ 미국



※출처 :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초래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 정상화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5·6면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연 1.00%로 결정했다. 8월 인상 이후 석 달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임시 금통위를 열고 빅컷(0.50%p 인하)을 단행했던 지난해 3월 중순 이전 수준인 1.25%에 한 발짝(0.25%p)만 남겨 두게 됐다. 8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값 급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 최근 높아진 인플레 압력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금리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이다.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0%와 3.0%로 예상했다. 기존 8월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새롭게 발표한 2023년 전망치는 2.5%였다.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2.3%, 2.0%, 1.7%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올해 2.3%, 내년 1.5%) 대비 각각 0.2%p와 0.5%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인플레 우려와 경제 호조에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표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1.3% 늘어 시장 전망인 1.0% 증가를 웃돌았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준은 24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김서영 기자 0jung2@

함께하는 'CSR 필름페스티벌'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도모한 '함께하는 기업'들의 CSR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치하, 격려하는 행사다. 2012년 첫 걸음을 내디딘 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국제협력 NGO인 아프리카인사이트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신태현 기자 holjjak@

中, 연말 앞두고 항만 통제… 글로벌 공급망 새 악재로

자국 선원 7주 걸쳐 의무검역
외국인 선원 인력 교체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물류난 가중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일환으로 항만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발효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국 선박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급망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항만으로 귀국하는 자국 선원에 대해 최대 7주에 걸친 의무 검역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선원은 귀국 전 출발지에서 3주, 도착 후 항구에서 2주, 거주하는 성에서 2주를 격리해야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인력 교체를 금지했다. 잦은 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키운다는 것이 이유다. 인력 부족으로 다른 곳에서 선원을 새로 채용한 경우 해당 선박 역시 중국 항구를 사용하기 전 2주간 대기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당국의 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선주들은 선박 경로를 변경해야 했고 선원 교체가 지연되면서 공급망 위기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해운회의소의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 역시 "중국 정부의 선박 운영에 대한 모든 제한은 공급망에 누적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해운 산업의 핵심 허브이기도 한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진단검사를 위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3만 4000명을 봉쇄했고,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가 감염되자 밤새 초등학생들을 묶어 두는 등 고강도 방역을 시행 중이다.

한편 중국이 이달 1일 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도 공급망 혼란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선박 데이터 회사는 자동 식별 시스템 송수신기를 통해 전 세계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 발효 후 중국 해역 선박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진 탓이다. 지난 3주간 중국에서 신호를 보내온 선박 수는 이전 대비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컨테이너 항구 10곳 중 6곳이 몰려 있는 곳인 만큼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선박 조회 사이트 마린트래픽의 게오르기오스하치마놀리스 미디어 전략가는 "선박 데이터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접어드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선박 접안과 하역, 출항 시간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중국에서 사라진 선박 데이터는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롯데쇼핑 대표에 김상현… 순혈주의 깼다

〈전 홈플러스 부회장〉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기존 BU 체제 HQ 체제로 개편
호텔 사업 총괄 대표엔 안세진

롯데그룹이 계속된 실적 부진 등 유례없는 위기감 속에서 조직 개편과 외부 수혈 인사를 실시했다. 롯데쇼핑 총괄대표로 김상현〈사진〉 전 홈플러스 부회장을 영입했다. 1979년 롯데쇼핑 출범 이후 롯데그룹의 유통 부문수장에 '비롯데맨'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롯데의 순혈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비즈니스 유닛(BU) 체제도 4년 만에 헤드쿼터(HQ) 체제로 바꿨다. ▶관련기사 8면

롯데는 25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38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유통군 총괄대표로 선임된 김상현 전 부회장은 글로벌 유통 전문가이다. 1986년 미국 P&G로 입사해 한국 P&G 대표, 홈플러스 부회장을 역임했다.

신임 호텔군 총괄대표로 선임된 안세진 사장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커니 출신으로, 2005~2017년 LG그룹과 LS그룹에서 신사업 및 사업전략을 담당했다. 2018년부터는 모건스탠리PE에서 놀부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롯데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주요 사업군인 식품, 쇼핑, 호텔, 화학 사업군은 HQ 조직을 갖추고, 1인 총괄 대표 주도로 면밀한 경영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HQ는 기존 BU 대비 실행력이 강화된 조직으로 거듭난다.

롯데는 이번 인사에서 철저한 성과주의 기조에 따라 승진 임원과 신임 임원 수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는 화학BU장 김교현 사장과 롯데지주 이동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식품군 총괄대표는 식품BU장 이영구 사장이 맡는다. 이영구 총괄대표는 롯데제과의 대표이사도 겸직한다.

롯데쇼핑의 신임 백화점 사업부 대표로는 신세계 출신의 정준호 롯데GFR 대표가 내정됐다. 롯데컬처웍스 대표로는 최병환 CGV 전 대표를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했다. 롯데멤버스에는 신한DS 디지털본부장 출신 정봉화 상무를 DT전략부문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재 3명을 영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가온·라연 6년째 미쉐린 '3스타'

한식 레스토랑 '가온'과 '라연'이 2016년 국내 첫 미쉐린(미슐랭) 가이드북 발간 이후 6년 연속 '3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됐다. ▶관련기사 19면

미쉐린코리아는 25일 발간한 미식 안내책자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2'를 통해 최고 등급인 3스타 2곳과 2스타 7곳, 1스타 24곳의 레스토랑을 발표했다.

2스타는 '권숙수'(한식), '밍글스'(컨템퍼러리), '코지마'(스시), '주옥'(한식) 등 7곳이 받았다.

1스타는 24곳 중 '스시 마츠모토'(스시), '스시 상현'(스시), '윤서울'(한식), '코자차'(아시안), '하네'(스시) 등 5곳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소희 기자 ksh@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팬데믹 뚫은 '선함'… 지속가능 성장 이정표 세운다

올해 10회째 착한 기업들의 축제
코로나19에도 총 86개 작품 경쟁
행복나래 등 15곳 최종수상 영예
"어둠 속 사회적 책임 활로 찾아"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장인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심사위원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와 기획재정부장관상 등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변하고 있다.

특히 고객 경제활동이 '가치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며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CSR)'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캠페인, 경영혁신, 교육 기회 보편화 등 기업의 진화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지혜를 나누는 건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CSR활동 기록을 공모하는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도모한 '함께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는 행사다.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회가 거듭된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널리 퍼트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후원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와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기찬 심사위원(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철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떴고, 기업들도 작년에 움츠렸던 CSR 활동의 활로를 찾아 나섰다"고 말했다.

유일호 심사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는 ESG 경영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SR와 ESG의 확산은 기업의 경영이 '오늘', '자신의 이익'만 중시하는 경영에서 '내일',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선언, 인권·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지향점으로 삼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에는 코로나19로 CSR 활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총 86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결과 15개 부문에서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15곳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재정부장관상인 상생경제 부문에는 행복나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복나래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기업과 정부, 시민이 뭉쳐 '하루 두 끼'의 식사를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CSR를 실천했다.

현대오토에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인 과학문화 저변 확대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코딩 교육에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대학생 멘토와 연결해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며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사회적 가치구현 부문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수상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들이 주 2회 결연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이 되고,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보살핌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건강한 사회 부문은 위대한상상이 수상했다.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은 고객들에게 배달 용기를 포함한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고객이 제로웨이스트 박스에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따뜻한 사회 부문은 아모레퍼시픽이, 기술나눔 부문은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의 희망나눔 부문에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수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소아암 환아들을 응원하는 XR(확장현실) 가상 전시회 '작은 손들이 모여 함께 싸워줄게'를 열었다. 재능나눔 부문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사회가치 부문은 담심포가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상인 꿈꾸는 사회 부문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수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평등한 사회 부문에서, 문화예술봉사단메리는 활기찬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금융위원장상(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을 받았다. SK행복나눔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의 글로벌 나눔 부문에서, 포스코청암재단은 글로벌 공헌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송영록 기자 syr@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 수상작

구분	사상부분	기업단체명	영상명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생경제 부문	행복나래	이제는 전국이다!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을 위한 행복 두끼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문화 저변확대 부문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교육
행정안전부장관상	사회적가치 구현 부문	라이나전성기재단	나의짝꿍어르신(사랑잇는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건강한 사회 부문	위대한 상상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새로운 가치를"
보건복지부장관상	따뜻한 사회 부문	아모레퍼시픽	종로구 플라스틱 업사이클 벤치 기증
	기술 나눔 부문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PLUSTIC 캠페인
	희망 나눔 부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쥐비메이커스	소아암 환아들을 응원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 "작은 손들이 모여 함께 싸워줄게"
	재능 나눔 부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름다운가게,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환아들을 위한 희망 메신저 〈초록산타〉
	사회가치 부문	담심포	시작장애아동의 점자학습과 사회적 향상을 위한 점자촉각놀이교구재 개발과 보급
고용노동부장관상	꿈꾸는 사회 부문	포스코1%나눔재단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평등한 사회 부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스타벅스 최초 장애인 인식 개선 매장!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소개합니다
	활기찬 사회 부문	문화예술봉사단메리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음악 선물
금융위원회위원장상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	신협사회공헌재단	더불어 함께의 가치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	글로벌 나눔 부문	행복나눔재단 소음 프로젝트팀	비자(없는 아이들)
	글로벌 공헌 부문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아시아펠로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심사평

"경영혁신·공정한 상생 기업 사회적 책임 진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일반적 기부·봉사활동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 큰 기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진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캠페인과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 교육 기회 제공 및 공정한 상생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올해 행사에 제출된 영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올해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모든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란 주제로 86개 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학생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2021년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지구를 지키자, 사회를 지키자, 기업을 지키자, 사람을 지키자는 ESG경영에 대한 주제도 많았다"고 밝혔다.

수상작을 뽑는 기준에 대해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기준 항목에 따라 영상별 개별 채점 진행 후 1차 채점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수상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 행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창출을 도모한 '함께하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발자취를 찾아 그 활동을 격려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jinsan@

환영사 및 축사

"선한 영향력 확산, 다함께 노력해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이제는 ESG 경영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생이란 어느 일방이 다른 쪽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상호 윈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든 단체든 봉사하고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그 도움과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좋은 일일 뿐 아니라 공헌하는 쪽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연합(UN)의 책임투자원칙과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이 발표된 이래 다양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녹색 투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K-Taxonomy'를 마련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산업계 적극적 참여 절실"

"CSR와 ESG의 확산은 기업의 경영이 '오늘', '자신의 이익'만 중시하는 경영에서 '내일',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이제 CSR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같이 축사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환경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73%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어워드 & 페스티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jinsan@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암 연구기금〉

“기업 사회적 책임은 필수… 이투데이 약속대로 10억 기부”

행사 이모저모

한국·아프리카어 하모니에 환호
‘선한 영향력 확대’ 대표 행사로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 찬란한 아침 햇살에 너의 다짐 새겨봐~.”

25일 ‘2021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 페스티벌’이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와 한국어로 부르는 ‘아프리카인사이트(사단법인)’ 소속 가수들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아프리카인사이트는 한국과 아프리카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캠페인, 교육,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협력 비영리단체(NGO)다.

축하공연에서 처음 무대에 선 아프리카 여성 보컬 가가는 비욘세의 ‘I was here’를, 바리톤 안준원은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바바 예투’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인사이트에 속한 가수 6명이 총출동해 가수 조수미의 ‘챔피언(Champion)’을 불렀다. 이들은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를 번갈아 쓰며 하모니를 만들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핸드폰을 들고 이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는 관객들도 있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2021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SR 행사’로 발돋움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일호 심사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박재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신태현 기자 holjjak@

행사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기찬 심사위원(가톨릭대 경영대 교수),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먼저 김상철 대표가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는 지난해 약속한 대로 올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암 관련 연구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김 대표의 말에 좌중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왔다. 이어 유일호 심사위원장이 환영사를, 정태호 의원과 박진규 차관이 축사를 했다.

가수 인순이로 알려진 김인순 해밀학교 설립자는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한국 문화 적응이 힘들어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뒤이어 수상기업인 행복나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관계자가 사례 발표를 했다. 수상작들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상영됐다. △행복나래 △현대오토에버 △라이나전성기재단 △위대한상상 △아모레퍼시픽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쥐비메이커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담심포 △포스코1%나눔재단 △스타벅스코리아 △문화예술봉사단메리 △신협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 △소음 프로젝트팀 등의 활동이 소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의 성과와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일호 심사위원장은 “올해로 10회째인 이 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다”며 “이제는 ESG 경영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는 이 행사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 행사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돼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이끌어주는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규 차관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상생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지속적인 이바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했다.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수상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결식우려 아동에게 ‘행복한 두 끼’ 챙겨줘”

임은미 행복나래 주식회사 팀장

사회문제 많지만 결식 아동에 집중
정부·기업·시민 행복안전망 만들어

“저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앞으로 참여 인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미 행복나래 주식회사 팀장은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의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복나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2016년 11월에 설립됐다. 2016년 당시 14개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106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목표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이다. 2020년 기준 정부로부터 급식을 지원받는 결식 우려 아동은 약 31만 명이다.

임 팀장은 “저희는 기업이지만,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함께 사회공헌을 한다”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문제는 너무나 많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그중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시행된 것이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 두 끼 챌린지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행복한 두 끼를 챙긴다는 목적으로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다. 결제 기부를 통해 4900여만 원, SNS 참여 기부를 통해 1억 4700만 원, 멤버사 기부를 통해 9억4000만 원을 모아 올해 총 11억3759만 원이 조성됐다.

임은미 행복나래 주식회사 팀장이 CSR 수상기업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임 팀장은 “행복얼라이언스는 협력의 시너지에 주목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아이들의 끼니를 우선 챙기고자 했고, ‘행복 두 끼’ 프로젝트도 한발 더 나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두 끼가 필요한데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참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과 정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 안전망을 추구한다. 우선 기초지자체가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면 기업과 시민이 도시락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이 도시락을 생산·배달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이 밖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행복상자 지원, 기초 생필품 패키지 지원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배달앱 첫 다회용기 사용… 자동 회수까지”

박지혜 위대한상상 실장

‘요기요 그린 캠페인’ 플라스틱 수거
36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거둬

“사회공헌을 하면서 내린 결론 두 가지는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 것’,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도 하지 말 것’이다. 앞으로도 진실성을 지켜나가겠다.”

박지혜 위대한상상 실장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페스티벌’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요기요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위대한상상이 운영하는 요기요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지속 가능한 환경 △나눔을 통한 상생 △임직원 참여 활동 등 세 가지다.

박 실장은 ‘요기요 그린 캠페인’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7000개 상자를 수거했는데 플라스틱 양은 12.5톤으로 약 36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축구장 5개 너비의 소나무 숲이 1년간 흡수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그린 캠페인은 고객에게는 박스를 배송하고, 여기에 일회용품을 담아 다시 보내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재활용한 제품은 참여 고객에 굿즈로 돌려주거나 페이스실드를 만들어 의료진이나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

박 실장은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2019년 9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를 선택해서 받게 하는 기능을 도입했고, 작년 12월에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부터 배달앱 최초로 다회용기 카테고리를 론칭했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지금은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스탠 용기로 배달받고 QR코드를 찍으면 먹은 이후 자동으로 회수까지 해간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더불어 성장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행복두끼 챌린지를 함께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파트너와 결식아동이 원하는 음식을 원할 때 먹는 ‘요기요 나눔 파트너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위대한상상 실장이 CSR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 실장은 “임직원이 왜 하는지를 알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내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친환경 다회용 컵을 전사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줄인 다회용 컵은 12만 개로, 이산화탄소 6톤을 절감한 것과 맞먹는다. 위대한상상은 트리플래닛과 함께 ‘반려나무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그는 “신규 입사자가 생길 때마다 반려나무를 하나 구매해서 입사자에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강원도 노후림에 심는다. 지금까지 1000그루 정도 심었다”며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리고 생물종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이주열 "긴축 아닌 정상화… 빚폭탄 미루는 게 더 위험"

韓銀 "현 금리 여전히 완화적"
내년 1~2월 추가인상 운 띄워
'3% 성장전망' 둔화 가능성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5일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추가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르면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내년 1월에도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금리인상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물론,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금리수준을 그대로 둬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는, 상황이 뒷받침해 주는 현 시점에서 인상해 나가는 것이 가계부채 부담은 물론 거시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내년 3%로 예상한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여전히 완화적, 내년 1분기 추가인상 = 한은은 연 1%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라는 돌발 상황에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 수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코로나 발발 직전인 지난해 3월 기준금리 수준은 1.25%였다. 당시도 완화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한은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아직은 긴축이라기보다는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내년 1분기(1~2월) 중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도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금통위 직후 오후까지 나온 증권사 보고서 10곳을 조사한 결과 예외 없이 내년 1분기 인상을 예상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공조 의지를 고려할 때 내년 1월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가계빚 논란에도 인상할 때,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 빠른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1.03포인트 상승했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조5000억 원과 3조2000억 원씩 늘었다며,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반면,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은 올 두 차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작년 말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결정은 경기상황이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전망 등이 중요한 변수"라면서도 "금리인상이 더 늦어지고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가 늘면 나중에 영향이 더 커지는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4% 성장에 이어 내년 3%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빚으로 연명하던 부실기업, 줄도산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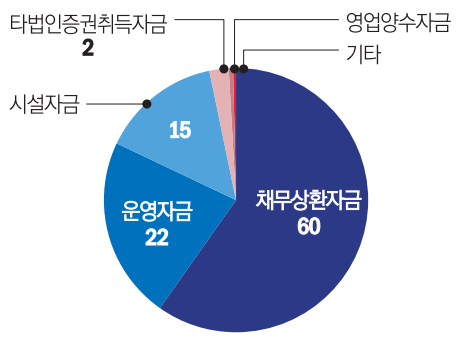
대출 깐깐해지며 자금난 심화
이자부담 늘어 고용·설비 위축

인천에서 스마트폰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거래은행과 전화하는 게 일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출물량이 줄어 매출은 반 토막이 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까지 오르자 은행 대출이 더 깐깐해지면서 거래은행의 독촉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자마자 은행 담당자가 더는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며 압박하고 있어 자금난이 심해졌다"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인력을 더 줄여야 하는데 과연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주름살이 하나 더 늘게 됐다.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 걱정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나은 편이다.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은 줄도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국은행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자금 사용
(단위: %, 2020년 2월 이후 회사채 발행기업 대상)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부도로 이어졌던 기업들의 발생 직전 7년간의 재무지표 변동패턴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들은 모두 2~5년 전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상환배율(차입금/상각전영업이익)은 5배를 초과했고,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0%를 넘었다.

지난해 이 세 가지 부도 위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150개로 전체 대상기업(2175개)의 6.9%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이들 기업이 전체의 8.1%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계기업이 더 늘면 한국경제에도 부담이다. 멀쩡한 기업의 생산성까지 좀먹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9년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업종 9만966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부문에서 한계기업이 유발하는 혼잡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의 증가는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켰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업부채도 문제다. 금융연구원은 2022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업부채를 한국 경제 리스크로 꼽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 이후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19발 금융지원 조치가 만료되는 내년 3월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사기로에 놓이게 된다.

'좀비기업'이 늘어난다면, 주식시장도 '좀비시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유동성 기반 장세도 약해져 활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인아 기자 ljh@

"이자부담 1인당 年 30만원 증가"

지난해 말보다 6兆 늘어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0.75%→1.00%)하면서 1년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채무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는 2020년 말 대비 30만 원 늘어난 301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두면서 초저금리 때 빚을 내 아파트나 주식 등 자산시장에 투자한 '영끌·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자산시장 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내년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대출 최고금리 5%,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6% 진입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해 말 0.5%에서 이달 1.0%로 두배 뛰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한 명의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 271만 원에서 약 30만 원 증가한 301만 원으로 추정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이자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 원으로, 신용이 취약한 대출자는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범근 기자 nova@

6%대 주담대 초읽기… '영끌' 집주인들 어쩌나

올 들어 주담대 금리 1%P 올라
기준금리 인상에 추가상승 예고
가계대출 이자 부담 더 커질 듯
"대출의 부실화" 우려 목소리도

시중은행, 되레 '우대금리' 낮춰
"정부 총량규제 영향" 해명 급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8월 기준금리 인상 당시에도 대출금리가 최대 1%포인트(p) 이상 오른 만큼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도 이어지며 은행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 작년比 1%p↑… 추가 상승 반영 시 6%대 가능 =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기준금리 1% 시대가 다시 열렸다.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해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3.58~4.954%로 작년 말(2.52~4.054%)보다 1%p 가까이 올랐다. 고정형(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이날 연 3.85~5.191%로, 지난해 말(2.69~4.20%)보다 1%p 넘게 오르며 최고 금리가 5%대에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 역시 2.65~3.76%에서 현재 3.40~4.63%로 상승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0.75%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한 기준금리가 반영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출금리의 상단이 연 6%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행권이 예대금리 마진에 따라 예금금리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신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의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받는 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실제로 6%대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많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6%대 금리인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수신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대출의 질적인 측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어 우리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우대금리 내리고 가산금리 올리고 = 대출 금리 상승세에 은행들이 오히려 금리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폭을 갈수록 좁히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에 반영된 가감조정금리 추이를 보면 0~1%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은행이 0.67%로 가장 낮고, 이어 농협은행(0.71%), 신한은행(0.74%), 국민은행(1.12%), 하나은행(1.82%) 순이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한 값에서 가감조정금리를 뺀 수치다. 가감조정금리는 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가감조정금리 범위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이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항목이다. 금리를 더하는 가산금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셈이다.

그런데 주요 은행들의 가감조정금리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6월 1.18%까지 가감조정금리 수준을 높이다가 지난달에 1.12%까지 내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0%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하나은행은 2%대였던 수준을 올해 6월 1%대로 낮췄다. 농협은행은 1%대 수준을 0%대로 내렸다.

반면 가산금리는 상승세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접어든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높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대금리를 없앤 은행들이 있다"며 "최근엔 증가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해서 우대금리를 부활했는데, 결국 우대금리를 없앤 것은 정부의 총량 관리 방침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유진 기자 eugene@

전문가 제언 금리인상기 투자전략

국내 증시 투심 위축 불가피
현금 비중 늘리고 분할 매매를

"중국 등 신흥국 시장 주목"

이투데이가 국내 증권사 대표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 금리 상승기에 자산관리 전략을 문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정화삼 신한PWM강남파이낸스센터 센터장은 "단기간 내 너무 빠른 상승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1년 반의 흐름을 보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2배 이상 올랐고, 안전자산인 채권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이나 금 같은 대체 시장도 함께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리 정상화 흐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구간이 맞물리면서 이머징(신흥국) 비중을 줄이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센터장은 "미국을 위주로 더 빠른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 테이퍼링, 금리도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며 "보유 중인 원화의 비중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선진국 통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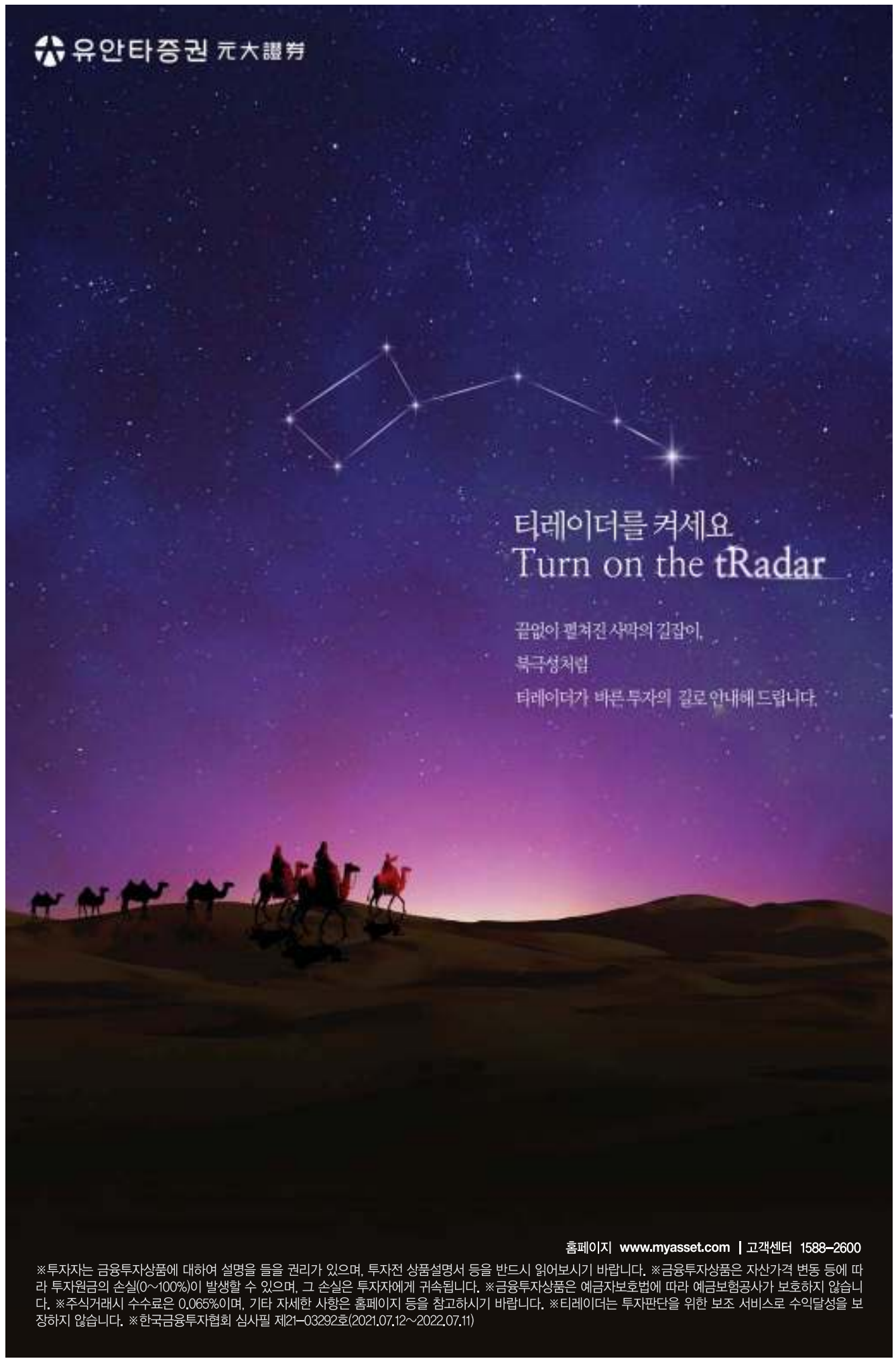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의 NH투자증권 골드넛WM센터 부장은 "유동성이 늘어나고 여윳돈이 생겨야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데,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면 증시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시장은 방향성이 비슷하다"며 "(가격이) 빠질 때는 채권, 금, 리츠도 다 같이 빠져서 헤지가 잘 안 된다.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로는 신흥국 시장을 제시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면 중국은 돈을 푸는 등 정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미국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긴축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중국은 유동성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 매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센터장은 "금리가 정상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종목 교체 리밸런싱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더 지켜보면서 일정 부분의 레인지(범위)를 정해 두고 신중하게 분할 매수·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증시 더 식는다"… 하락장에 베팅하는 '곱버스 개미들'

"주가 하락하면 두 배 수익"
KODEX 200선물인버스2X
개인, 이달 516억어치 순매수

"국내주식 더이상 먹을게 없다"
테슬라 등 해외주식 사들이기도

벤처기업 대리 정수익(34·가명) 씨는 22일 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에 그동안 모아둔 45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ETF는 주가 하락분의 두 배 수익을 내는 이른바 '곱버스(2X)' 상품이다. 반대로 주가가 1% 오르면 2% 손실을 보는 구조다.

정 씨가 '곱버스' ETF에 투자한 이날은 주춤하던 코스피가 3013.25까지 오른 날이다. 그는 "어차피 인생은 한 방 아니냐"며 "'제이(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애칭)를 한번 믿어볼 생각이다. 당분간 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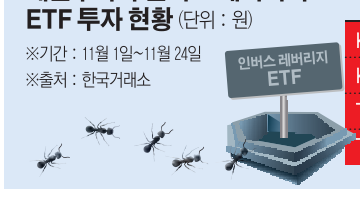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공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다수의 참석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으면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25일 코스피는 0.47% 하락한 2980.27로 마감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열기가 식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증시가 미지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로(0%대) 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증시에서 발을 빼는 개미와 하락장에 거는 '동학개미'들이 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거래량이 가장 많은 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하루 1% 하락하면 이 ETF가 약 2% 상승하는 구조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51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 외인은 각각 165억 원, 396억 원 규모 순매도했다.

KODEX 코스닥 150선물 인버스 ETF도 나란히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KODEX 코스닥 150선물인버스 역시 코스닥150 선물지수를 역으로 추종한다. 개인투자자는 해당 ETF를 481억 원어치 사들였다. 같은 ETF를 기관, 외인은 각각 426억 원, 42억 원 규모로 팔아치웠다.

개인투자자 인버스 레버리지 ETF 투자 현황 (단위 : 원)
※기간 : 11월 1일~11월 24일
※출처 : 한국거래소



구분	개인	외인	기관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79억	-207억	-1059억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547억	-34억	-507억
TIGER 200선물인버스2X	39억	60억	-100억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	15억	-	-16억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통상 레버리지 ETF의 경우 기초지수 일간 변동률의 배수로 수익률을 연동시키는 게 목표여서 기간 수익률과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변동성 끌림 효과로,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버스 투자는 헤지용, 단기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020년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락을 짧게, 상승은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활용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다"라고 설명했다.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발을 빼는 개미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거래(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자금을 빌려주는 것) 이자율 인상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대부분 증권사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같은 시중금리를 바탕으로 회사별 가산금리를 적용해 신용융자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은 무조건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경영적인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먹을 게 없다", 해외로= 서울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는 박주식(36·가명) 씨는 10월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처분해 현금 3000만 원으로 테슬라와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 그는 국내 상장종목의 변동성이 커서 매수·매도 시기를 잡기도 어렵고, 수익률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학개미들이 사들인 외화증권(주식·채권) 보관 잔액은 23일 기준 1200억6684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1026억5000만 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쓰기도 했다.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4억3237만 달러를 기록한 테슬라였다.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 23억2596만 달러어치를 매수하고 18억9359만 달러어치를 매도했다. 이어 엔비디아(순매수 3억4277만 달러), 리비안(2억5902만 달러), 메타(2억4128만 달러), 아이온큐(1억5927만 달러) 순으로 순매수액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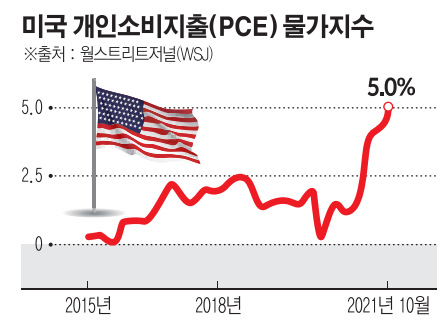
이인아 기자 ijh@

Fed, 테이퍼링·금리인상 앞당기나
'美경제 쌍두마차' 소비·고용 호조

10월 가계소비 1.3% 증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
19.9만…팬데믹 이후 최저치

내년 세 차례 금리올릴 가능성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에도 소비를 늘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터를 떠났던 노동자들의 복귀도 늘었다. 미국 경제가 '소비·고용'에 힘입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10월 개인소비지출(PCE)이 16조2900억 달러로 전달보다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 1.0% 증가도 웃돌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탄탄한 소비가 미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소비가 매우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외식을 하고 지출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 강세 배경으로 노동시장 회복이 꼽힌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9만9000명으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최고치는 작년 4월 기록한 615만 건이었다. 시장 전망치(26만 명)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1969년 11월 15일(19만7000명) 이후 5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가 늘었다. 고용 증가가 미국 가계 수입을 늘려 소비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지표 개선은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조건으로 고용을 꼽았다. 이달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발표하면서도 고용 회복 부진을 이유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고용 증가가 확인된 만큼 연준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고 금리인상 시기도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급등도 연준의 움직임에 힘을 싣는다. 10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0% 올라 상승률이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 목표치인 2%도 크게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4.1% 급등해 199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PCE 물가지수와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다. 제롬 파월〈사진〉 연준 의장이 2기 출범 일성으로 물가 안정을 다짐한 만큼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준이 내년 중 0.25%포인트씩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것에 대비해 자산매입 속도를 올리고 금리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기자 0jung2@

We Do Technology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기업들과 SK하이닉스가
블록처럼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반도체 개발에 도전합니다

'함께의 힘'으로 세계가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세상을 만듭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외부 수혈 인사로 위기 돌파 유통업계 '체질개선' 속도전

'위드 코로나' 생존전략

롯데 '순혈주의·온정주의' 탈피
유통군·호텔군 총괄대표 영입

이마트 강희석 대표 발탁 후
글로벌 기업 출신 인재 뽑아

현대百, 한섬 해외패션 사장에
박철규 前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주요 유통그룹 외부인재 영입 현황

롯데

이름	소속 및 직책	주요 이력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한국 P&G 대표, 홈플러스 부회장
안세진	호텔군 총괄대표	LG·LS그룹 사업전략 담당, 놀부 대표이사
정준호	백화점 사업부 대표	신세계인터내셔날 해외사업 담당
최병환	롯데컬쳐웍스 대표	CGV 대표
나영호	e커머스사업부장	이베이코리아 본부장
배상민	디자인경영센터장	카이스트 교수

신세계

강희석	이마트 대표	베인앤컴퍼니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	맥도날드, 피자헛 코리아 오비맥주
최영준	SSG닷컴 최고전략책임자	티몬 부사장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나이키, 로레알

현대백화점

박철규	해외패션부문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통 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통 유통업계도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변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커머스의 급부상에 전통 유통업체들이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25일 단행된 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파격'과 '전방위적인 인재 영입'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외부 출신 대표나 임원을 적극 영입해 '순혈주의'를 버리는 것은 물론, 부진한 사업의 대표를 과감하게 내보내 '온정주의'에서도 벗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우선 신임 유통군 총괄대표로 선임된 김상현 부회장은 1986년 미국 P&G에 입사해 한국 P&G 대표, 동남아시아 총괄사장, 미국 P&G 신규사업 부사장을 거친 'P&G맨'이다. 이후 홈플러스 부회장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DFI 리테일그룹의 동남아시아 유통 총괄대표, H&B 총괄대표를 역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신임 호텔군 총괄대표로 선임된 안세진 사장도 외부 출신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커니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LG그룹과 LS그룹에서 신사업 및 사업전략을 담당했다. 2018년부터는 모건스탠리PE에서 놀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또한 롯데쇼핑의 신임 백화점 사업부 대표로 내정된 정준호 롯데GFR 대표도 신세계 출신이고, 롯데컬쳐웍스 대표로 내정된 최병환 대표는 CGV 전 대표였다.

롯데멤버스도 신한DS 디지털본부장 출신 정봉화 상무를 DT전략부문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재 3명을 동시 영입하면서 어느때보다 순혈주의를 깨뜨린 인사로 풀이된다. 앞서 롯데는 올해 3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으로 이베이코리아 출신의 나영호 부사장을 임명한 데 이어 9월에는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를 사장급인 디자인경영센터장에 임명했다.

기존 유통, 호텔 BU를 이끌었던 강희태 부회장과 이봉철 사장은 그룹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용퇴해 롯데의 기업문화로 꼽혀 온 '온정주의'도 탈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보다 외부 인재 영입에 먼저 눈을 돌린 것이 신세계그룹이다.

신세계그룹은 2019년 6년 만에 이마트 수장을 교체하면서 베인앤컴퍼니 출신인 강희석 대표를 발탁해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강 대표는 취임 이후 과감한 혁신 전략을 펼쳐 이마트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커머스 사업인 SSG닷컴 대표까지 겸임하게 됐다.

지난해 신세계푸드 대표에 오른 송현석 대표도 외부 인사 출신으로 맥도날드 마케팅팀장, 피자헛 코리아 마케팅 총괄이사, 오비맥주 마케팅 총괄 부사장 등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 경력을 쌓아 왔다. 지난 2018년 신세계푸드 마케팅담당 상무로 영입돼 '노브랜드 버거' 기획 및 마케팅, 가정간편식 브랜드인 '올반'의 브랜딩과 상품 기획 등을 주도한 후 대표로 승진했다.

2019년 스타벅스코리아 수장에 오른 송호섭 대표도 글로벌 전문가다. 송 대표는 20여 년간 나이키, 로레알 등 글로벌 기업에 근무했으며 2018년 스타벅스코리아 전략운영 담당 임원으로 영입된 후 1년여 만에 대표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는 SSG닷컴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최영준 전 티몬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모셔 왔다. 최 CSO는 시간대별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등 티몬의 월간 첫 흑자 달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신세계의 핵심 사업부로 떠오른 SSG닷컴에 영입됐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올해 인사에서 한섬 해외패션부문 사장으로 박철규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부문장을 영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부인재 영입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코로나를 계기로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순혈주의보다 성과주의가 중시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윗선 내보내고 아래 새로 뽑고… 인적쇄신 속도

이커머스 성장·소비 세대교체에
젊은 인재로 신사업 경쟁력 제고

주요 유통업체들이 '인적쇄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존 인력을 내보내고 20~30대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커머스 등 빠르게 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유통업체들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낸다.

구조조정에 가장 속도를 내는 기업은 롯데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창사 4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희망퇴직에는 예상보다 많은 약 5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올해 두 차례(2월, 10월)에 걸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역시 창사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0년 차 직원에서 8년 차 직원으로 확대됐다. 7월 GS샵과 합병한 GS리테일은 지난달 20년 차 이상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기존 인력이 나간 자리는 젊은 인재로 채우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9월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롯데백화점도 이달 초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섰다.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이다. 지원자들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최종 인터뷰 등을 거쳐 채용된다.

GS리테일은 올해 하반기 편의점 80여 명, 슈퍼 40여 명, 디지털커머스 20여 명 등 140여 명을 채용한다.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20~30대 인재 영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신세계그룹 내 신세계와 이마트, SSG닷컴 등 14개사는 지난달 신입사원 공개모집을 했다.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이다. 현대백화점그룹 또한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그린푸드 등 4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임원급에서도 젊은 피 수혈이 이뤄지고 있다. 롯데는 이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기조에 따라 승진 임원과 신임 임원 수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전략, 신사업, 기획 등의 업무에 새 얼굴을 기용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56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참신한 인재를 대거 발탁했다"며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기업들이 인적쇄신에 매진하는 이유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통업계는 최근 이커머스의 급성장, MZ세대 대두, 소비패턴 변화 등 여러 변수에 직면해 있다. 기존 오프라인 위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세대교체를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진한다. 롯데는 상대적 약점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쇼핑 통합앱 '롯데온'을 경쟁사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신세계그룹은 이베이코리아, W컨셉 등 인수한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 간 시너지를 낼 전략을 모색한다. GS리테일은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2025년까지 연간 취급액을 현 15조5000억 원에서 25조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그룹 주요 승진 인사

권봉석
㈜LG COO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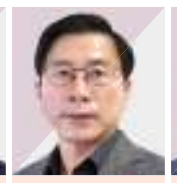
조주완
LG전자 CEO 겸 CSO

하범종
㈜LG COF 겸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김명규
LG디스플레이 사장

김인석
LG스포츠 CEO 부사장

이동언
S&I코퍼레이션 CEO 부사장



장익환
LG전자 BS 사업본부장

김병훈
LG전자 CTO 겸 ICT기술센터장

이삼수
LG전자 CDO

'취임 4년' 구광모號 LG 179명 승진 최대폭 인사

2022 임원인사 발표

권봉석 부회장, COO 낙점
LG전자 새 CEO에 조주완
132명 신임상무 대거 발탁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해 지주회사인 ㈜LG의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게 됐다. LG전자 조주완 최고전략책임자(CSO) 부사장은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사장으로 승진했다. 권 부회장은 1963년생, 조주완 사장은 1962년생으로 60년대생을 그룹 대표 주자로 내세웠다.

LG는 24~25일 계열사별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22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신규 임원 132명 포함 전체 승진 179명으로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최대 규모 인사다.

특히 일부 최고경영진 변화 외에 대부분 CEO를 유임했다. 취임 4년 차를 맞은 구광모 회장이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CEO로 이동한 권영수 부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회장의 보좌 역할에 권봉석 부회장이 낙점됐다. 권 부회장은 내년 1월 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LG의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권봉석 부회장은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LG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미래준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 부회장은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에 입사한 이후 전략, 상품기획, 해외사업 등 사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두루 경험한 전문 경영인이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구광모 회장의 경영철학에 부합하는 적임자로 손꼽힌다.

권 부회장을 대신해 LG전자 신임 CEO에 오른 조주완 사장은 재직 기간인 34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한 '글로벌 사업가'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조 사장은 최근 2년 동안 CSO를 맡으며 '이기는 성장과 성공하는 변화'의 DNA를 전사적으로 심어 왔다.

이번 LG 인사의 가장 전반적인 특징은 젊은 인재와 경륜을 갖춘 최고경영자의 조화다.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를 과감히 기용해 '고객가치'와 '미래준비'를 도전적으로 실행했다. LG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네 번의 임원 인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132명의 신임 상무를 대거 발탁했다.

신규 임원 중 40대는 82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전체 임원 가운데 1970년대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1%에서 올해 말 기준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최연소 임원은 올해 41세인 1980년생 신정은 LG전자 상무로, 차량용 5G 텔레매틱스 선행개발을 통한 신규 수주 기여 성과를 인정받아 발탁 승진했다. 주력 계열사 CEO는 대부분 유임됐다. 연륜과 경험을 갖춘 기존 경영진에게 신뢰를 보내 지속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한편, 역량을 갖춘 리더에게는 새로운 중책을 맡겨 미래준비와 변화를 가속하고자 한 선택이다.

LG는 △고객가치 중심 경영 가속화 △디지털 혁신 및 기술리더십 강화 등 지속 성장 관점에서 사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재도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고객 경험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발굴한 LG전자 권혁진 LSR(Life Soft Research) 연구소장을 상무로 발탁하는 등 고객에 대한 집요함을 바탕으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 인재 10명이 승진했다.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미래준비를 위해 신기술 개발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및 엔지니어 분야 인재도 중용했다. LG전자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 50세의 김병훈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작년 말 출범한 LG AI연구원의 배경훈 원장은 우수 인재 확보 및 초거대 AI(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상무 승진 3년 만에 전무로 발탁 승진했다.

여성인재 확대 및 외부 인재 수혈 기조도 이어졌다. 여성 전무 1명 승진, 신규 상무 8명 선임 등 9명이 승진했다. LG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 비중은 2018년 말 3.5%(29명)에서 2021년 말 6.2%(55명)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전략·마케팅·R&D·생산 등 다양한 직무에서 여성 임원들이 승진하며 여성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의 다양성을 강화했다. 재계 관계자는 "취임 4년 차를 맞은 구광모 회장이 본격적인 4세 경영의 첫발을 뗀 인사로 평가된다"며 "권봉석 부회장과 함께 새로운 LG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또 영업규제 한다고?”… 한숨 더 깊어진 소상공인

정부 규제움직임에 반발

“대출로 버텨…이제 방법 없어 다중이용시설 규제 동의 못해” 턱없이 적은 손실보상에 분통 김총리, 연이틀 방역강화 강조

25일 찾은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먹자골목이 일상회복에도 한산하다.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영업이 제한되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우리 숨통을 죄는 것과 다름없다.”

25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먹자골목.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온갖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다가 그나마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매출을 조금 올렸는데 규제가 또 나오면 방법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자 당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영업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책임한 방역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수도권은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신규 확진자 수는 24일 기준 4115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찍었다.

소상공인들은 이달 시작된 일상회복에 영업 정상화를 꿈꾸며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할 수 있다. 연말연시 특수도 기대했다. 그러나 고조된 분위기는 한 달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면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증가에 따른 대책 없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만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확진자 증가 원인을 다중이용시설의 문제로 치부하는 듯한 정책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며 “매출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방역패스마저 확대되면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안도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존 10만 원인 손실보상액 하한선을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20만 원 수준의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자영업자 C 씨는 “손 소독제와 분사 소독제 한 달 지출만 해도 몇만 원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할 게 아니면 이런 지원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날을 세웠다.

업계에선 인건비와 영업이익 등 손실보상의 기준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역시 정부의 저리 대출을 통한 2조 원 투입에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글/사진 김동효 기자 sorahosi@

방역 AI 로봇 내년 도입 충남 보령시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로봇을 도입해 내년도 대천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만남의광장 등 4개 광장에서 시범 주행하는 방역 로봇 모습. 연합뉴스

경기회복 찬물·자영업자 반발에 ‘비상계획’ 딜레마

위중증환자 600명 넘어서 방역패스 적용대상 조정할듯 청소년 감염률 성인보다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관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수준 방역조치가 수반되는 ‘비상계획’ 발동 여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3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원·제주권을 제외한 전역에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는 각각 39명, 26명 늘었다. 입원 중인 위중·중증환자는 612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병상 여력은 날이 갈수록 바닥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위중·중증환자가 급증하며 24일 오후 5시 기준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국 71.5%, 수도권에선 83.9%를 기록 중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추가 확보에도 불구하고 69.0%가 차 있다. 수도권 가동률은 83.3%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상계획 발동 시 수반되는 주요 정책수단은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규모·시간 제한,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확보 등이다. 이 중 취약시설 보호와 병상 긴급확보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도입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위중·중증환자 증가 등이 기본접종 5개월 이상 경과한 고령층의 돌파감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산세 지속 시 방역조치 강화는 비상계획 수립보다는 일부 방역조치 적용대상 조정·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제안된 방역패스 유효기간(4개월) 설정,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식당·카페 등 추가)가 가능한 수단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및 적용시설 확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인구는 성인(18세 이상)의 8.9%에 불과하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청소년까지 넓힐 경우, 소아·청소년 접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지난해 11월 대비 단위인구당 성인 확진자가 4.3배 늘 동안 0~18세 확진자는 7.9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1, 고2와 비교할 때 유의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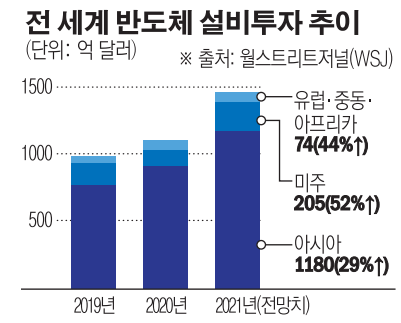
사적모임 제한 강화가 수반되는 전면적 비상계획 발동에 대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고, 정부 내에서도 일부 경제부처의 반대가 있다. 특히 최근 확산세가 백신 미접종군과 고령층에 집중돼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인 9월부터 전국 이동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획 발동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날 0시 기준 기본접종 완료자 대비 추가접종률은 5.6%로 집계됐다. 80세 이상이 30.9%로 가장 높고, 70대(13.5%)가 뒤를 이었다. 얀센 백신 접종자가 몰린 30대는 추가접종률이 기본접종 완료자의 7.9%에 머물렀다.

김지영 기자 jye@
손현경 기자 son89@

美, 반도체 强드라이브에도 한국·대만이 주도권 잡을듯

정부 적극 지원 원동력 올 전체 투자 중 80% 차지 美 공장 건설비 30% 비싸 10년간 점유율 6% 그칠 듯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미국 반도체 생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이 생산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번 주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텔과 대만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도 미국에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기반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생산 거점이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약화됐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 중 75%를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4개 거점이 차지하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최근 잇단 투자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다시금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제는 자국 내 생산 증강에 나선 국가가 미국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 거액의 투자를 하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올해 설비투자에 총 1460억 달러(약 173조 7108억 원)를 쏟아부을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이며, 5년 전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투자액 가운데 미국 전용은 7분의 1 정도로, 2년 전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아시아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트너는 이 비율이 2025년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22일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동안 새롭게 창출될 반도체 생산능력 가운데 미국의 점유율은 약 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SIA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마련하는 이점으로 △풍부한 숙련된 인재 △지식재산권 보호 △구매자와의 지리적 가까움 등을 꼽았지만, 높은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SI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경우 그 비용이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약 3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50%로 더 벌어졌다. SIA는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대체로 정부 지원의 유무에 의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대만은 오랫동안 현지 반도체 메이커에 고액의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연간 수출액을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제우대조치나 금리인하 등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000억 엔(약 6조2024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1594만원〉

44세 '흑자 인생' 정점…60세부터 적자

통계청 '2019년 생애주기적자'

17세 최대 적자, 28세부터 흑자

노동소득 '41세 3638만원' 정점

은퇴 미뤄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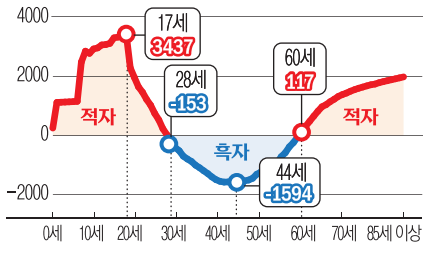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이 28세부터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소득이 감소해 60세부턴 생애소득이 '적자'로 전환됐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생애주기적자는 전년보다 2.3% 늘어난 132조9000억 원이었다. 전(全) 생애 중 노동소득은 96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소비는 1102조7000억 원으로 4.6% 늘었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이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선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노동연령층(15~64세)에선 흑자를 기록한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 추이 ※ 출처: 통계청

(단위: 만 원, 2019년 기준)

※ 적자: 소비 〉 노동 소득, 흑자: 소비 〈 노동 소득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27세까지는 교육 등의 이유로 '적자'의 삶을 살다가 이후 본격적인 노동 활동을 시작하면서 28~59세까지는 '흑자'의 삶을 산다. 이후 은퇴 등의 영향으로 60세부터는 다시 '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17세에서 3437만 원 적자였다. 생애주기적자는 이후 28세에 흑자로 전환돼 44세에 1594만 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1인당 소비는 17세에서 3462만 원으로 최대였고, 1인당 노동소득은 41세에서 3638만 원으로 최대였다.

이후 59세까지 흑자가 유지되다 60세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은퇴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적자 전환 연령은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56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에는 60세로 늦춰졌다.

연령계층별로는 유년층(147조5000억 원)과 노년층(117조1000억 원)의 적자가 전년 대비 3.9%, 8.2% 커졌다. 노동연령층(131조7000억 원)의 흑자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공공소비 증가의 영향이다. 공공소비는 유년층에서 75조1000억 원, 노동연령층에서 190조6000억 원, 노년층에서 63조 원이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유년층은 8.0%, 노동연령층은 6.6%, 노년층은 11.8%가 증가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공공소비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비중은 19.2%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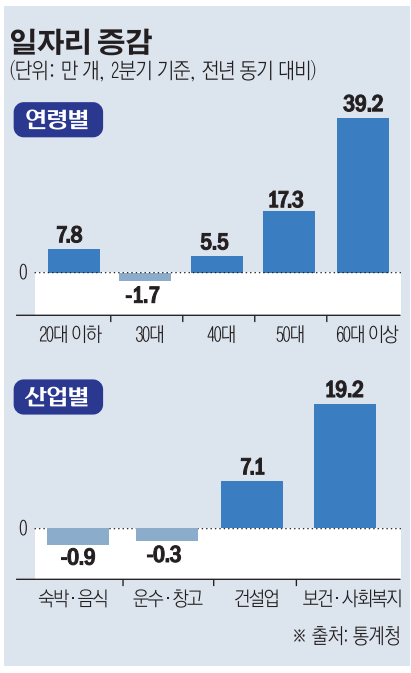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 소비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노인 일자리 39만개 늘 때 30대는 1.7만개 감소

통계청, 2분기 일자리 68만개 ↑

보건사회복지부문 19만개 증가



올해 2분기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새 1만7000개가 사라지면서 전체 연령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대의 일자리는 39만 개 이상 늘면서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올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7만700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68만1000개(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 21만1000개 이후 3분기 36만9000개 , 4분기 50만3000개까지 확대됐고,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 재확산의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32만1000개 늘었다. 2분기에는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의 일자리 감소세가 7분기째 이어졌다. 30대 일자리는 430만2000개로 1만7000개(0.4%) 줄면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30대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가 주로 취업하는 업종인 제조업 업황의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 일자리가 39만2000개(12.5%) 늘어난 293만8000개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전체 일자리가 68만1000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60대 이상에서만 증가분의 절반을 훌쩍 넘는 57.6%를 채운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9만2000개(9.4%) 늘어난 224만7000개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취업자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비슷한 이유로 공공행정 일자리도 137만5000개로 7만 개(5.4%) 확대됐다.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21.3%)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416만4000개로 2만5000개(0.6%)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은 6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개 식용 종식' 사회적 논의 시작

민관 기구·정부협의체 구성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 식용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차원의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생산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유통분과로 논의를 나눠 진행한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내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검토가 끝나면 개 식용 문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사육농장(농식품부·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하고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국내 최대 캐릭터 라이선싱 축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1' 관람객이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라이선싱 행사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韓 조세 경쟁력 5년간 17위→26위 하락"

한경연 美 조세재단 보고서 분석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컸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를 활용,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2017년 17위였던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는 올해 26위에 머물렀다. 5년간 9계단 하락한 셈이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순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G5 국가 가운데 △미국(28위→21위)과 △영국(23위→22위) △프랑스(37위→35위) 순위는 상승했고, △독일(15위→16위)과 △일본(19위→24위)의 조세 경쟁력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의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렸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했고,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차례 더 올렸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코로나 이후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도 세액 공제

2020년 1월 이전서 기간 확대

중도 폐업 여부 상관없이 가능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기존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만 적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사태 이후 계약분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 원을 낮춰주고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Bobcat®

DOOSAN

Bobcat is a Doosan Company. Doosan is a global leader in construction equipment, power & water solutions, engines, and engineering proudly serving customers and communities for more than a century. | Bobcat and the Bobcat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Bobca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other countries. ©2018 Bobcat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김정은 만나 해결” 李 측근 전면 포진 당 장악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신속의사 결정
김영진 사무총장·강훈식 전략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측근인 김영진〈아래 사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세우며 ‘당 장악’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요 당직 일괄사퇴 하루 만인 이날 사무총장에 김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눈에 띄는 건 두 의원 모두 이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은 소위 ‘7인회’라 불리는 이 후보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이다. 당의 예산·인사권을 쥔 사무총장에 최측근을 앉혔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당 장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내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최근 이 후보를 여러 차례 수행했다.

이는 이 후보가 강조해온 ‘이재명의 민주당’과 연결된다. 선대위 16개 본부에서 6~7개 본부로 줄이는 ‘슬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당의 중추에 최측근이 자리한 만큼,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169명 의원에는 각자 맡은 지역의 관리와 2개 직능단체, 1인당 3명 인재영입에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이재명계 의원들에 따르면 선대위는 영입 인사들을 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종합하면 반대 목소리가 나올 여지를 줄여 당과 선대위가 이 후보의 수족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민주당으로 확대·강화하는 출발을 모든 의원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선대위는 본부를 6~7개로 줄이고 의사결정 구조도 간소화해 신속 대응 체제로 만들 것이다. 모든 의원이 여의도에 모여 정책을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머리색을 어두운 회색으로 염색한 것에 대해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선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결의를 다진 것”이라며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바꾼다는 취지에서 머리부터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도적인 외교 구상을 펼쳤다. 이 후보는 남북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야 조건부 제재 완화와 동시 (비핵화) 행동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미중 경쟁에 관해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우리가 선택할 상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양국 적대관계의 원인으로 국내정치를 짚었다. 이 후보는 “한국과 일본은 관계가 개선되고 쌍방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필요 때문에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선거운동 더 늦으면 곤란” 원톱 빠진 尹 선대위 출발

주호영·김성태·원희룡·권성동 등 본부장
김종인 “국힘 선대위 나와는 상관없어”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고심 중이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윤 후보는 25일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아래 사진〉 전 제주지사,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의원(사무총장),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본부장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다.

선대위 공보실장에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공보단장에 조수진 의원, 대변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 김병민 윤석열 경선 캠프 대변인이 선임됐다. 윤 후보는 선대위 별도 조직인 약자동행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약자동행위 부위원장은 변호사인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특히 대언론 업무를 담당할 공보라인에 현역 여성 의원 3명(김은혜·전주혜·조수진)을 전면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인선을 이날 최고위원회에 부의했다. 윤 후보는 부의에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중도,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모습 통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고 1분 1초 아끼며 뛰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선대위 구성은 조직 구성에 이어 외부영입 인사 등 순차적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던 김 전 위원장이 합류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더 이상 선대위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 “오늘도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후보가) 무슨 최후통첩을 했다고 주접을 떨어놨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됐다고 그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갈등의 핵심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여러 차례 김병준 전 위원장 인선에 불편함을 드러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병준 전 위원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발언했지만, 윤 후보 측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이날 구성된 1차 선대위 인선에 대해선 김 전 위원장은 “남이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코멘트할 게 없다”며 “그건 자기들이 만들었다. 내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oon@

이재명 “군 인권 옴부즈맨”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철수 “청소년 스토킹 가중처벌”

‘여성 폭력 추방의 날’ 앞다퉈 공약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한 문화공간에서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군 내 폐쇄적 상황들이 문제다.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발생해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 엄정한 처벌로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이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수입·판매·유통 규제와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정책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먼저 심 후보도 제시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스토킹은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강력 처벌 등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의 이날 공개일정은 여야 후보 모두 참석한 코라시아포럼과 당 최고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뿐으로, 여성폭력 관련 행보는 없었다.

김윤호 기자 uknow@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 법제화 과제”

文 대통령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축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경험했다”며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역설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예년보다 길어진 美 블프…공급망 혼란이 최대 변수

본행사 앞서 이미 할인 돌입
연말 판매액 10% 증가 전망
인력난·재고부족에 고객 불만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와 사이버먼데이(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첫 월요일) 등 미국 최대 쇼핑축제가 26일(현지시간) 그 막을 열지만, 기업들은 벌써 할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른 행사 시작으로 사실상 예년보다 긴 쇼핑 시즌을 맞았지만, 공급망 혼란에 따른 상품 확보가 올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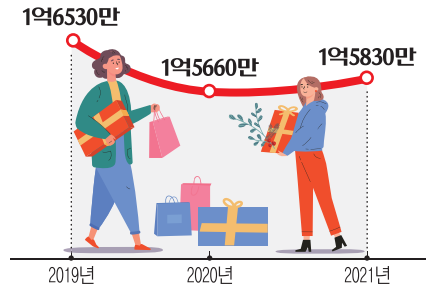
CBS방송에 따르면 아마존과 월마트, 타깃, 베스트바이 등 주요 소매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에 앞서 이미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매주 할인 상품을 소개하는 등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소비자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억눌린 소비와 휴가철 여행 대신 쇼핑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소매판매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미소매협회(NRF)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를 포함한 11~12월 두 달 간의 연말 쇼핑시즌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최대 10.5% 증가한 8590억 달러(약 1022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기간 매장 쇼핑을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전체 64%를 차지해 지난해 51%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업 컨설턴트인 닐 손더스는 "소비자들은 상점에 들어가 구매하길 원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 또한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추수감사절 시즌 쇼핑객 수
(단위 : 명) ※2021년은 전망



※출처 : 미국소매협회(NRF)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제품 부족 문제가 쇼핑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 손더스는 "할인은 이미 시작했지만, 제품 재고가 바닥을 치고 있고 수요는 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매를 위해 더 열심히 검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블랙프라이데이 이후에도 크리스마스까지 쇼핑 시즌이 계속되는 만큼 기업들은 재고 확보에 분주하다. 가구·주방용품 브랜드 윌리엄소노마의 로라 앨버트 최고경영자(CEO)는 "재고 부족으로 이월된 주문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고객들에게 문제를 미리 경고하기 위해 전화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갭과 빅토리아시크릿 등은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재고 부족이 연말 연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판매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인력난과 재고 부족 이중고로 고객과 매장 직원 사이에서 마찰도 커지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장 직원들이 비싸진 가격과 상품 부족으로 화를 내는 고객이 있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며 "8월 소매 부문 근로자는 75만 명이 일을 그만뒀고, 9월에도 68만5000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적용되는 할인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는 아마존과 존루이스 등 6개 회사의 2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84개 품목이 지난해 행사에서 비슷하거나 더 싸게 팔렸다고 분석했다. 위치가 지적한 품목에는 세탁기와 오디오, TV 등 행사 기간 인기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캐서린 하트 영국 거래표준협회(CTSI) 회장은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할인 행사는 매년 더 커지고 할인 상품도 많아지는 것 같지만, 종종 판매자는 특가 상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 기간 전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마지막 각료회의' 기념사진 찍는 메르켈 24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맨 앞줄 가운데) 독일 총리 대행이 베를린 총리 공관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내각 구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독일에서는 9월 26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이날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에 나섰던 메르켈 총리는 1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각료회의 역시 메르켈 총리 대행이 총리 자격으로 참여한 마지막 회의가 될 확률이 높다. 베를린/AFP연합뉴스

美 스타트업 '가짜 고기' 이어 無원두 '가짜 커피' 개발 나서

'원두 없는 커피'의 시장 출시가 임박했다. 식물성 대체육인 '가짜 고기'에 이어 '가짜 커피'를 구입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타트업 '아토모'가 콜드브루(차가운 물에 우려내는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특이점은 원두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커피 맛은 나지만 커피가 아닌, 일명 '가짜 커피'다.

회사 측은 원두 대신 대추 씨앗과 치커리 뿌리, 포도 껍질, 카페인을 섞어 커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디 클레이치 아토모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 원료는 재활용되는 것"이라며 "아토모가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들"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아토모는 지난 9월 한정 수량의 '가짜 커피'를 시장에 선보였다. 아직은 생산 초기 단계로 시애틀 공장에서 하루 1000명분의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내년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도 인스턴트, 그라운드 커피 등 다양한 형태를 구상 중이다.

시장 전망은 밝다.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포장 커피 시장 규모는 44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진짜' 커피 맛과 효능을 살릴 수 있다면 큰 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기존 커피와 달리 가짜 커피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성도 갖췄다.

김서영 기자 0jung2@

'4차 유행' 휩쓴 유럽 "부스터샷 맞아야"

각국 봉쇄… 미접종자 규제 등 강경책

제4차 유행이 현실화한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을 위한 각종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각국이 봉쇄 등 방역 규제에 나서는가 하면,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기존 입장을 바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권고했다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탈리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행동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다음 달 6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의 실내음식점과 술집, 그리고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출입이 제한된다.

슬로바키아 역시 전날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2주간의 '록다운(도시봉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생필품 이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되고,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도 금지한다. 인구 550만 명의 슬로바키아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서도 규제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에서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각국의 방역대책 완화와 백신 효과 저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봄까지 유럽에서 약 70만 명의 사망자가 새롭게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슬로바키아에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브라티슬라바/AP연합뉴스

상황이 악화하자 ECDC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했다. 9월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두 달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부스터샷은 면역력 저하에 의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를 높이며, 새로운 입원이나 사망자의 증가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ECDC는 특히 40세 이상의 성인들이 우선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드레아 아몬 ECDC 소장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국가들을 향해 접종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ECDC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들이 보건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된다. 집행위는 통칭 '백신 여권'이라 불리는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의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변경에 이번 권고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JP모건이 더 오래갈 것"〉 〈JP모건 CEO〉

'중국 공산당 저격' 다이먼 입방정 하루 만에 "후회"

"해선 안될 말" 사과성명

미국 월가 대표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 던진 농담으로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회사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전날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언급을 해서는 안 됐다"며 "우리 회사의 힘과 장수 능력을 강조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보스턴칼리지에서 열린 한 경영진 클럽 모임이었다. 다이먼 CEO는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았는데, JP모건도 그렇다"면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는데 내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든 듣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다이먼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들로서는 베트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오랜 시간과 비용, 인명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패전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중국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다이먼의 발언은 블룸버그의 보도로 전날 처음 알려졌다.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뉴욕 본사에 있는 JP모건 대관업무팀과 중국 법인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8시간 만에 다이먼은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며 사과 성명을 내놨다. 그는 "국가든 지도자든 특정 집단에 대해 농담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어서 최근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JP모건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올해 회사 익스포저는 197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하며, 연초에는 월가 은행 중 처음으로 중국에서 자산운용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이먼의 농담에 따른 파문이 일자 회사 차원에서 곧바로 사태에 수습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월가 최장수 CEO인 다이먼은 종종 허풍 섞인 발언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2018년 한 자선행사에서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보다 똑똑해 대선에 나간다면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도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몇 시간 후에 사과 성명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다이먼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언급이나 반응을 하진 않았다. 다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웨이보에 "나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보다 오래갈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건다"며 다이먼의 발언을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이 과거 공산당 정당성이나 대만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기업과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UBS그룹은 투자자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 돼지'라는 표현을 쓴 쓴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대해 중국을 비하했다며 해고 압박을 받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폭넓게 허용할 것"

생보사 CEO 간담회

자산운용·헬스케어 활성화

자회사 소유·부수 업무 인정

상품 개발·보험 모집 과정

소비자 보호 사전감독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원장은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 테크(대형IT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에 소비자 피해와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 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부통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될 것이란 게 정 원장의 생각이다.

정은보(왼쪽 두 번째) 금융감독원장, 정희수(첫 번째)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한 생명보험업계 대표들이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또한,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해 취약부문을 포착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과 생보업계 CEO와의 상견례 자리인 이날 행사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지연 기자 sjy@etoday.co.kr

KTB證, 유진저축은행 인수 완료…계열사 추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의 100% 주주인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취득을 완료하고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진저축은행 인수 관련 KTB투자증권의 출자승인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B투자증권은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2003억원에 취득했다. 지분 인수에 함께 참여한 기관투자자 지분 29.91%를 포함하면 총 지분 90.1%, 매매대금은 2999억원이다.

유진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업계 7위권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은 16.3%로, 업계 중 자본건전성이 가장 양호하다. 수익성도 안정적이다. 유진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668억원, 영업이익 875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로 KTB금융그룹은 증권·자산운용·VC·PE·신용정보 부문부터 소매금융부분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됐다. 기존 편제에 저축은행을 더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변화된 금융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저축은행은 유진에스비홀딩스와의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의 합병인가 승인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인수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스타트업에 공들이는 우리금융 "투자유치 기회 꾸준히 제공할 것"

'핀테크데모데이' 개최

우리금융그룹이 자사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nnoLab)' 기업들을 위한 투자 유치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 4층 강당에서 '제26차 핀테크데모데이, 우리금융그룹×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하는 핀테크데모데이는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행사다. 2015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부, 기관 및 기업 등에 핀테크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연계 등 금융산업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데모데이는 디노랩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예선을 거쳐 총 8개 디노랩 기업이 본선에 올랐고, 이번 데모데이에서 IR피칭을 통해 최종 4개사가 우수발표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핀테크혁신펀드 투자 운용사로부터 IR(사업설명회)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발표기업에게는 모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디노랩이 보유한 센터 입주 기회도 제공된다.

본선 데모데이에서 발표한 디노랩 기업은 다테크니끄, 컨슈머인텔리전스, 써로마인드, 딥센트, 마이크로프로텍트, 펫핀스, VS커뮤니티, 금방 총 8개사다. 이 중 우수발표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 개발사 '마이크로프로텍트', 이륜차 안전솔루션 개발사 '다테크니끄', 귀금속 B2B 시장 거래 중개 플랫폼 개발사 '금방' 및 반려동물 관리 생활금융 플랫폼 개발사 '펫핀스' 기업이다.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디노랩베트남센터에서 현지글로벌 데모데이를 공동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핀테크데모데이 공동 개최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의 인연이 매우 깊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생명존중 실천"…푸본현대, 생보사회공헌委에 기금

푸본현대생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25일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존중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다수의 생명보험사가 뜻을 모아 2007년에 설립한 단체이다.

현재까지 고령화 극복, 저출산 해소, 자살예방 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어린이 청소년 복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박애재단(경기도 고양시 소재)으로 전달, 마스크·손소독제·공기청정기 등 코로나19 전염예방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푸본그룹의 경영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임직원들이 기부하는 금액에 회사가 1:1 매칭해 기부하는 1:1 매칭 그랜트 제도와 급여 끝전 모으기 등 사회공헌기금 모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공윤수 상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올해에도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푸본그룹의 경영이념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험'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3종의 주계약과 111종의 특약을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부족한 보험 업그레이드부터 종합적이고 세밀한 보장까지 가능해, 보험을 통한 헬스케어 범위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과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갱신형으로 나뉘어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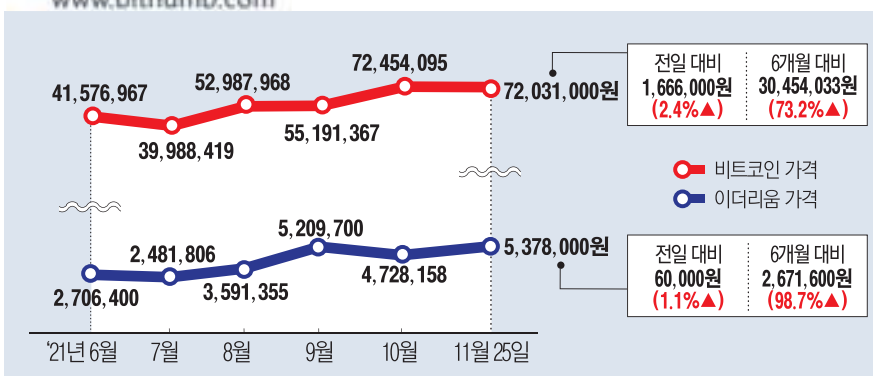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그리고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갱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특약은 비갱신형 52종과 갱신형 58종, 납입면제특약 등 총 111종으로 이루어져 고객의 재무상황에 맞춰 최적화 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이면 특약도 갱신형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암은 치료법의 발전으로 생존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도 커지는 추세인데,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 연관성이 높은 특정 부위별 보장을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진단특약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폐암·후두암, 위암·식도암, 간암·췌장암 등의 진단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에 대한 보장도 선택할 수 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1년 11월 2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767,000	45,000 (6.2%▲)	이오스	5,215	15 (0.3%▲)
리플	1,292	-2 (0.2%▼)	트론	123	-1 (0.8%▼)
라이트코인	271,800	6,500 (2.5%▲)	스텔라루멘	414	-6 (1.4%▼)
에이다	2,051	-48 (2.3%▼)	비트코인에스브이	194,500	1,900 (1.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레벨4 자율주행’ 아이오닉5, 내년 서울 도심 달린다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

현대차 ‘로보라이드’ 시범 운영
운전자 개입없이 스스로 車 제어

기아, 친환경차 ‘니로’ 신형 공개
내년 1분기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벤츠, 전기차로 전시 라인업 구성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 데이’에서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상무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기아가 처음 공개한 신형 ‘니로’.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자율주행 등 미래의 첨단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수입차 업계는 본격적인 친환경 전기차 라인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다.

‘2021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모터쇼다. 올해부터는 전동화, 자율주행 등의 중요성을 반영해 모빌리티 분야 전반으로 영역을 넓혔다.

현대차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국내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장(상무)은 “현대차는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개발철학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고객의 새로운 이동 경험 확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4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선보이는 시범 서비스 이름은 ‘로보라이드(RoboRide)’다.

레벨4 수준의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탑승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다.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은 차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를 스스로 제어한다.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기아는 친환경 전용 SUV ‘니로’의 2세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형 니로는 기아 디자인의 특징인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을 확장했다.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LED 주간주행등, 부메랑 모양의 LED 후미등을 비롯해 모험적인 이미지까지 더했다. 또한, 충전구를 전면부 중앙에 배치해 편의성도 높였다. 기아는 내년 1분기에 니로 하이브리드(HEV) 모델을 출시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차 버전도 내놓는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등을 앞세워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시 모델 전체를 전기차로만 구성했다.

아시아 최초로 △더 뉴 EQE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MATIC+ △컨셉 EQ 3종의 모델을, 국내 최초로 △더 뉴 EQS △더 뉴 EQB 2종의 모델을 새롭게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을 지낸 브리타 제에거 다임러 그룹 이사회 멤버는 영상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차종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할 준비를 할 것”이라 밝혔다.

아우디는 A6의 전동화 모델 ‘아우디 A6 e-트론 콘셉트’와 브랜드 최초의 콤팩트 전기 SUV ‘아우디 Q4 e-트론’, 완전변경된 2세대 ‘아우디 A3 세단’, ‘아우디 Q2’의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MINI는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와 협업해 제작한 콘셉트 모델 ‘MINI 스트립’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2021 서울모빌리티쇼’는 이달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 운송, 해상·철도로 우회

긴급재 사전 출하 등 선제 대응
“연대 비중 낮아 영향 제한적”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육송 물량을 해운이나 철도로 전환해 대응키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3일간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 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 시멘트 화물차(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철강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해 육로 대신 해상이나 철도를 통해 일부 제품을 운송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의 긴급재는 사전에 출하하고, 육상을 해송과 철송으로 전환하는 등 파업에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일간 파업으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철강제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대응방안은 항상 마련해두고 있다”며 “파업에 대비해 해당 기간 물량을 사전 출하하거나 육송 물량 일부를 철송(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 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곽진산 기자 jinsan@

‘벤츠의 눈’ LG ADAS 글로벌 전문가 ‘엄지척’

LG전자와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와 함께 개발한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전방카메라가 ADAS,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토센스(AutoSens)’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ADAS 전방카메라는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부품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가 독자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긴급제동(AEB) △차로유지보조(LKA) △지능형 전조등 제어(IHC)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 ‘오토센스온라인2021(AutoSensONLINE 2021)’에서 하드웨어 개발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또 LG전자는 ‘2020 비전 어워드(2020 Vision Award)’ 부문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은상을 공동 수상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중단하라”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 공동 성명
“방만 운영·도덕적 해이 부추겨”

경제계가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가 전용 아트 구독 플랫폼 ‘아트 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유명 미술 작품과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TV ‘더 프레임’이 올해 연간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TV ‘더 프레임’ 밀리언셀러 등극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이 올해 들어 연간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며 ‘밀리언셀러’의 자리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전용 아트 구독 플랫폼 ‘아트 스토어’를 통해 1500여 점의 전 세계 유명 미술 작품과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TV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집콕’ 트렌드의 장기화로 다양한 콘텐츠 소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TV를 단순히 가전제품이 아닌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더 프레임이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 프레임은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2017년 첫 출시 이후 소비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송영록 기자 syr@

SK케미칼, 광주 폐페트병 원사·화장품 용기로 재활용

SK케미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두산이엔티, 현대환경, 신흥자원과 투명 폐페트병을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는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광산구와 각 업체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신흥자원과 현대환경은 광산구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압축해 두산이엔티에 제공하고 두산이엔티는 이를 고품질 재생원료로 만들어 SK케미칼에 공급한다.

SK케미칼은 이 원료를 친환경 의류 원사, 재활용 화장품 용기 등에 사용한다. 광산구를 상징하는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이번 협력으로 연간 1000여 톤의 폐페트병을 확보하게 됐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Shinhan

Do the 「Green」 Thing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국내 최초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 가입

CDP
DRIVING SUSTAINABLE ECONOMIES
국내 금융업계 최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평가
7년 연속 리더십 A 확득

Zero Carbon Drive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전략 발표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국내 최초
글로벌 탄소중립 은행연합
창립멤버

Together For Our Planet

아시아 민간금융그룹 최초
2021 유엔기후변화총회 탄소중립 전략발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친환경 금융의 기준을 전파하고
친환경 금융을 이끌어 갑니다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미래를 함께 하는 여풍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망 사용료 못내" 버티는 넷플

"우수 콘텐츠 제공이 CP 역할"
볼머 디렉터 기존 입장 고수
국회, 관련 법안 발의로 압박
"서비스 품질 유지 조치 외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법제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콘텐츠사업자(CP)의 역할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뿐이고 망 투자는 ISP의 몫인 만큼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주장이다.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 같은 CP의 역할은 양질의 우수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인터넷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CP와 ISP 간 분업구조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ISP를 통해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에게 전송할 뿐 어떤 서비스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전에는 일부 ISP에 망 사용료를 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트래픽 가중 문제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이 늘어 ISP에 적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트래픽이 3.6Mb/초인 반면, 한국 이용자가 이용하는 대부분 인터넷은 평균 200Mb/초 수준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기간과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간담회장에서도 김 부의장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콘텐츠 경쟁력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통신망의 트래픽 발생량을 급증시키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 역시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를 푸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 같다"면서도 "협약이 잘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필요가 있다면 나서겠단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진 않지만, 소송 등으로 분쟁이 심화하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과기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카카오, 여민수·류영준 공동대표로

광고·핀테크 시너지 기대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류영준(왼쪽) 카카오페이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카카오가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공동대표로 내정했다. 광고와 디자인 부문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민수 대표와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외치고 있는 류영준 대표의 시너지를 통해 카카오의 성장을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공동 대표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두 대표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여민수 대표는 2018년 3월 대표로 선임돼 카카오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대표 선임 이후 비즈보드를 도입해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최대 매출 달성에 기여했다.

류영준 대표 내정자는 2011년 카카오에 개발자로 입사해 보이스톡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성공시키며 핀테크 산업 영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독립법인 카카오페이의 대표 이사로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의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이끌었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서 활동하며 핀테크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조수용 대표는 내년 임기 만료 이후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여민수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카카오 공동체가 약속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해 재연임을 결정했다.

여민수 대표는 "올 한해 카카오가 사회와 했던 약속들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라는 의미로 알고, 카카오가 혁신 기업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준 대표 내정자는 "사회적 책임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카카오의 '넥스트 10년'을 그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전'이라는 카카오의 핵심 DNA를 바탕으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닭값 내렸는데, 치킨가격 오른 까닭

외식메뉴 도미노 인상
육계값 1월 1kg당 3996원서 11월 2951원으로 내렸지만
부재료 기름·물류비용 올라
햄버거·라면 원재료 밀 30%↑
커피값도 500원 오를 듯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공식품과 외식메뉴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현실화했다.

우유, 참치, 라면, 치킨, 햄버거 주요 브랜드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경우는 라면과 햄버거 정도다. 우유와 치킨의 주재료인 원유(原乳)와 육계 가격은 보합세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인상된 배경은 무엇일까. 부재료의 가격과 물류비용 인상 등이 원인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팜유, 밀, 커피 등 원재료 선물 가격이 폭등하며 식품·외식업계의 줄인상이 이어진 배경은 원재료보다 부재료의 인상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업계 1위인 교촌 치킨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10호(950~1050g) 육계의 가격은 오히려 연초대비 내림세다. 한국육계협회의 시세정보에 따르면 10호 닭의 1월 가격은 1kg당 3996원에 달했다. 11월 기준 가격은 2951원으로 1000원 이상 내렸다. 11월 가격은 2018년 평균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촌치킨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교촌오리지날 등 오리지날 메뉴 한마리와 순살메뉴를 각각 1000원씩 인상했고 윙봉 제품 등 부분육 메뉴는 2000원씩 올렸다. 교촌의 원가 부담의 원인은 닭이 아닌 기름과 물류비용 등이다. 교촌은 카놀라유를 튀김유로 사용한다. 카놀라유는 올초만해도 톤당 106만원대에 거래됐으나 지난 9월 기준 190만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카놀라유의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은 것이 교촌이 가맹점과 협의해 가격을 올린 배경이다.

원유 선물 가격 역시 국제 시세는 10%대 초반에 오르는데 그쳤고 국산 원유 가격도 8월1일부터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랐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우유소비가 줄었음에도 원유가격이 오른 이유 역시 젖소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 인상이 한몫했다. 옥수수 가격은 부셀당 1년 새 20% 가까이 올라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유 가격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필두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F&B, hy가 최저 4.9%에서 최고 6.1%까지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치킨과 우유가 부재료 가격 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올랐다면 햄버거와 라면, 참치의 경우 원부재료의 동시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

햄버거 빵과 라면 원재료인 밀 가격은 부셀당 836.75달러로 연초대비 30% 이상 올랐다. 라면(유탕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도 톤당 4916링깃으로 전년대비 36.56% 가격이 뛰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는 내달 1일부터 평균4.1% 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동원F&B는 국제 어가 인상과 식용유지 가격 인상으로 참치가격을 평균 6.4% 인상했다.

라면 가격은 지난 8월 오뚜기가 가격인상의 선봉에 서면서 농심, 삼양식품, 팔도가 잇따라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라면 가격은 오뚜기가 11.9% 인상한 것을 비롯해 각 사가 6.9~7.8% 가격을 올렸다.

햄버거에 이은 가격 인상 품목으로는 커피가 꼽힌다. 현재 커피 가격은 파운드당 244.5달러로 1년새 2배 가까이 시세가 급등했다. 여기에 우유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아메리카노는 물론 라떼류의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업계 선두주자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4000원대 중후반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5000원 짜리 아메리카노가 등장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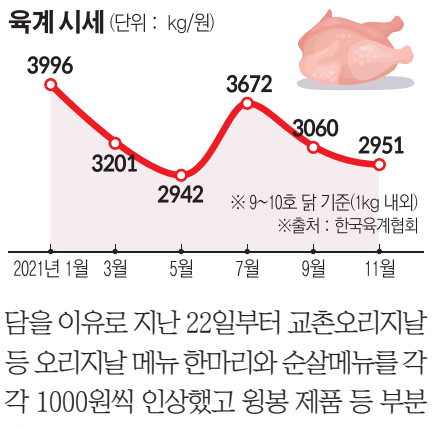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와 부재료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 품목이 상당한데다 쌀 가격은 하락세지만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쌀 값 인상 우려마저 커졌다"며 "내년에는 커피와 쌀 가공식품이 가격 인상 1순위로 꼽힌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주요 원재료 선물 가격 추이

품목(단위)	현재 가격	1년 전 대비 등락률
콩(부셀)	1265.5	-0.38%
밀(부셀)	836.75	30.63%
귀리(부셀)	742	105.68%
옥수수(부셀)	579.25	19.68%
커피(파운드)	244.5	90.64%
설탕(파운드)	19.92	28.6%
팜유(톤)	4916	36.56%

※ 11월 24일 기준 선물 가격 ※ 가격은 달러기준, 팜유만 링깃



이마트 '크리스마스 장식 할인전' 이마트는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크리스마스 트리, LED 전구, 인형, 트리 장식 용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할인전'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는 우선 1일까지 베이직 트리 3종과 장식용 LED 전구류를 동시 구매 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은 크리스마스 인형, 스노우볼, LED 전구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1인당 87개 마셨다" hy '윌' 누적판매 45억개

헬리코박터균 대중에 알려 화제

21년간 국민 1인당 87개꼴로 마신 발효유가 있다. 누적 판매량만 45억개에 이른다.

hy(옛 한국야쿠르트)가 2000년 첫 선을 보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하 윌)'이 주인공이다. 발효유가 '장(腸)' 건강 중심이었던 시기에 발효유의 위(胃) 건강 시대를 연 윌은 1초당 7개꼴로 팔려나갔다. 11.8cm 높이 '윌'을 세로로 세우면 달까지 닿을 수 있고, 지구는 12바퀴 이상 돌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은 600번 왕복할 수 있다. 지금도 하루 평균 60만개, 연간 2억 2000만 개가 소비되는 대표 발효유다.

윌은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8월에는 출시 20주년을 맞아 특허 유산균 HP7의 함유량을 기존 10배에서 20배로 늘렸다.

앞서 2012년에는 기존 특허 유산균을 10배 강화한 제품을 선보였고, 2014년에는 당 함량을 낮춘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저지방'도 내놨다. 또 2017년에는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가 개발한 위 건강 신규 유산균 'HP7(헬리코박터 프로젝트 7)'으로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리뉴얼했다.

윌은 한국인 50% 이상이 보균자인데도 생소했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균)'을 일반 대중에 알린 제품이기도 하다. '윌'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베리 마샬 박사를 광고모델로 발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hy가 호주 헬리코박터파일로리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던 마샬 박사를 모델로 한 광고는 2001년 5월 첫 전파를 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집값 꺾이나… 수도권 10주째 '주춤' 세종·대구 '하락'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우려로 매수 심리가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일부 지방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상승 질주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0.21%)보다 0.03%p 줄어 10주 연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0.11%로 지난주(0.13%) 대비 0.02%p 줄어 5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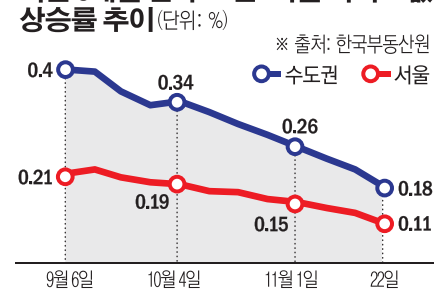
부동산원 측은 "22일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21개 區 집값 상승세 둔화
지방도 0.03%P 줄며 '관망세'
세종 0.21%·대구 0.02% 하락
"DSR 대출규제·금리인상 영향
내년 대선…상승·하락요인 혼재"

인천과 경기 아파트값 역시 상승률이 둔화했다. 인천은 전주(0.29%)보다 0.04%p 줄어 0.25% 올랐고, 경기는 지난주(0.24%)보다 0.03%p 줄어든 0.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세의 원인은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에 있다. 2017~2019년 아파트 입주량은 각각 40만·46만·42만 가구로 증가했는데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를 이어가 올해는 입주량이 28만 가구에 그쳤다. 내년과 2023년은 각각 31만·3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최근 3개월 간 수도권·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단위: %)



유동성은 서서히 조절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뒤 1년 8개월간 제로 금리 시대를 이어갔다. 이날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1.25%)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대출금 2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동성 조절로 매수 심리가 확연히 꺾이는 모양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유동성 문제는 대출 규제 강화로 막고 있지만,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공약들이 있는 만큼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과 대구는 유일하게 집값 하락을 이어갔다.

지방의 경우 이번 주 아파트값이 0.16% 올라 전주(0.18%)보다 0.03%p 꺾였다. 5대 광역시의 상승률은 지난주(0.15%)보다 0.03%p 하락한 0.12%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아파트값이 0.02% 하락했다. 부동산원 측은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동구(-0.04%)는 봉무·신암동 위주로, 달서구(-0.04%)는 대천동 입주 물량(11월 월배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533가구 입주) 영향 등으로, 중구(-0.04%)는 대신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지난 7월 26일 이후 18주 연속 집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집값은 이번 주 0.21% 하락하며, 전주(-0.12%)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의 영향으로 나성동·금남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박미선 기자 only@

또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 안돼"
위헌심판청구 신청자 1000명 넘어
"불합리한 측면 있지만 위헌 아냐"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입장 갈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종부세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상보다 큰 세금을 고지받은 일부 사람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 오류로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정상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잘못 전달됐지만, 이들 소송은 일정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종부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종부세 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청구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본격적인 위헌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최근 오류 난 고지서가 발송됐다지만 일부 구역에 불과할 뿐 위헌청구 소송 일정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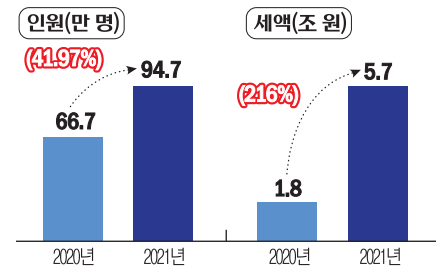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 문제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을 때 그것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세율마저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국민에게만 부담되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징벌적 과세로도 볼 수 있다. 위헌청구 소송을 통해 판가름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위헌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주택분 기준)



※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출처: 기획재정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엄밀히 이중과세는 아니다"며 "임대수익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지금껏 위헌결정이 나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건설현장 누비는 로봇·AI '안전 지킴이'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앞두고
재해예측 AI·위험감지 로봇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안전모 하나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아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위험 작업을 대신할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시공 로봇을 건설현장에 도입했다. 엑세스 플로어는 최대 6m 이상 높이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플로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며 무게 10㎏의 상부 패널을 설치한다.

건설장비의 가동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장비 위험제거장치(R.E.D)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불필요한 장비 투입을 방지하고 작업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근로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 사고를 예방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나선 건설업계 ※ 출처: 각 사

건설사	스마트 안전기술 추진 내역
삼성물산	고위험 작업 로봇 기술 도입, 건설장비 위험제거 장치 R.E.D 개발
현대건설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플랫폼 및 재해 예측 AI 도입
GS건설	4족 보행 로봇 스팟 도입, 메타버스 기반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호반그룹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감시단 규모 확대
쌍용건설	스마트 안전모 도입, VR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현대건설은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구조물 안정성을 수동으로 측정해야 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개발한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해 예측 AI' 가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과거 발생했던 안전재해 정보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준사고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담고 있어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GS건설은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시범 운영 중이다. 스팟에 360도 카메라·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 위험구간 유해가스 감지, 열화상 감지에 활용하고 있다.

직원 안전교육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메타버스 안전교육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영상을 구성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중견 건설사도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건설 현장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위험 작업 근로자 모니터링 등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발을 요청했다.

쌍용건설은 '스마트 안전모'를 현장에 도입했다. 이 안전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상태는 물론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비상시 SOS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까지 중랑구 '화려한 변신' 꿈꾼다

면목동 일대·옛 상봉13 등 4곳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신청
'경전철 면목선' 개통 수혜 기대

서울 중랑구 일대 정비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중랑구는 그동안 노후 주거지역이 많고 개발 사업이 더뎌 서울 안에서도 낙후 지역이라는 인식이 깊었다. 하지만 지역 내 재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섰고, 망우동과 면목동 일대에선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 중랑구 집값이 급등하자 면목동과 중화동 등 곳곳에서 민간 정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선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면목동 일대 3곳(68~71·172·527번지 일대)과 옛 상봉13구역 등 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곳은 모두 주민 동의율 충족 요건인 3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 호재가 많은 면목동 일대는 정비사업 열풍이 거세다. 면목동을 지나는 면목선은 지하철 6호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신내역과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을 잇는다. 면목선은 지난달부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0년께 개통될 전망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중랑구는 교통이 워낙 불편해 저평가받는 측면이 많았는데 면목선이 개통되면 교통도 편리하지고, 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매물로 나왔던 다세대나 빌라는 일찌감치 나가서 지금은 씨가 말랐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사업 절차를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다. 시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참여해 사업 진행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이에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공모 접수 기준은 주민동의율 30% 이상이다.

최근 중랑구 내 민간 정비사업 훈풍은 정부 주도 정비사업 확대와 집값 상승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중랑구 내 5곳을 선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중랑역(4만9967㎡)과 사가정역(2만8099㎡), 용마산역(2만1681㎡) 일대는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1만8904㎡와 상봉터미널 4만3202㎡에선 저층주거지 개발이 진행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무조건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소원사건 7대 2 의견 결정
시간제한 없어 과도한 형벌 우려
국회서 관련부분 개정 논의할 듯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시간적 제한이 없는 등 범행보다 형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조항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며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은 상대적 차이가 있다고 봤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회 음주운전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의문 시되는 음주운전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 요건 관련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평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첫 판단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받았던 음주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2018년12월24일 개정돼 2020년 6월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부분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는 정당"

상고심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우려"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왔던 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통관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리얼돌이 규제 대상인 음란물이 아니라고 봐온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어 미성년자를 연상케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전신 형태의 성행위도구'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김 씨는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물품은 관세법 234조 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분이 앳되어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 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춰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성큼 다가온 성탄절 25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크리스마스트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권숙수·주옥 등 33곳 '서울의 별'

대표식당 '미쉐린 가이드' 발간

한식당 가온과 라연이 6년 연속 '미쉐린(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됐다.

미쉐린코리아는 25일 발간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2'를 통해 3스타인 가온·라연 외에도 7개의 2스타 레스토랑, 24개의 1스타 레스토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온과 라연은 지난해에도 나란히 3스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온과 라온은 미쉐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이드북을 펴낸 2016년 이래 줄곧 3스타를 받게 됐다.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을 뜻한다.

미쉐린은 "가온과 라연이 변함없는 팀의 헌신 덕분에 올해도 미쉐린 3스타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2스타에는 권숙수(한식), 주옥(한식), 밍글스(모던한식), 모수(이노베이티브, 특정 장르가 아닌 셰프가 창작한 메뉴를 높게 평가), 알라 프라마(이노베이티브), 정식당(컨템퍼러리), 코지마(스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주옥은 지난해 별 1개를 받았던 곳으로 이번에 별 2개로 등급이 올랐다.

24곳의 1스타 레스토랑 중에는 7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고료리 켄'과 '소설한남' 2곳은 지난해 '플레이트' 단계에서 1스타가 됐다.

하네(스시), 스시 상현, 스시 마츠모토, 코자차(아시안), 윤서울(한식) 등 5곳이 새롭게 1스타 명단에 추가됐다.

이날 특별상인 '미쉐린 영 셰프 상'에 김보미 셰프(미토우), '미쉐린 멘토 셰프 상'에 장명식 셰프(라미띠에)가 각각 선정됐다. 또 '황금콩밭'(두부)과 '꽃, 밥에 피다'(한식)도 지속 가능한 미식을 향한 영감을 주는 레스토랑으로써 미쉐린 그린 스타를 유지하게 됐다.

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 그웬달 뽈레넥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는 레스토랑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제롬 뱅송 미쉐린코리아 대표는 "서울은 정부의 봉쇄조치를 경험하지 않은 행운의 도시"라며 "그 덕분에 미쉐린 가이드 서울도 6년 연속 발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을 공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2017년 가상자산(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금융위는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조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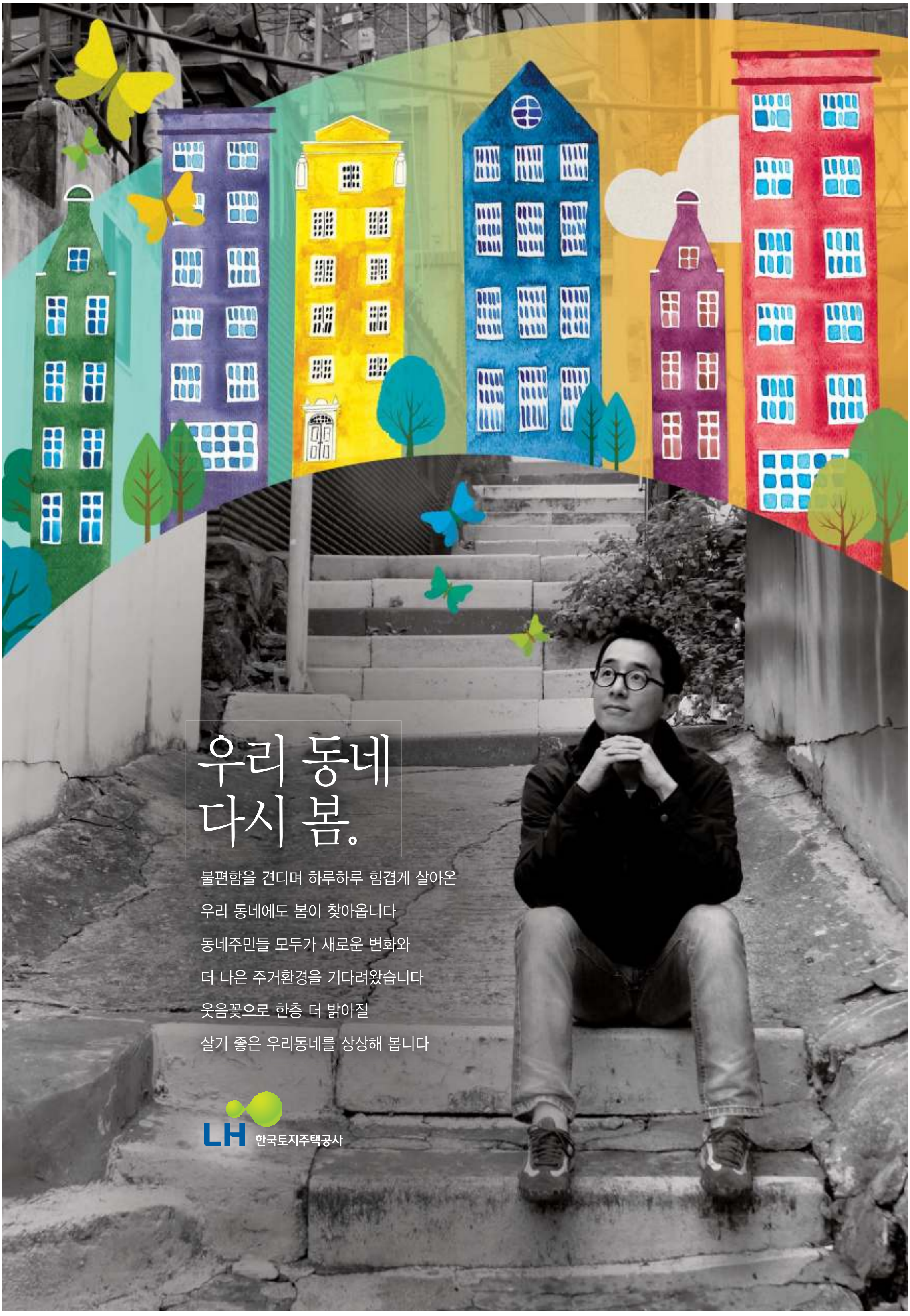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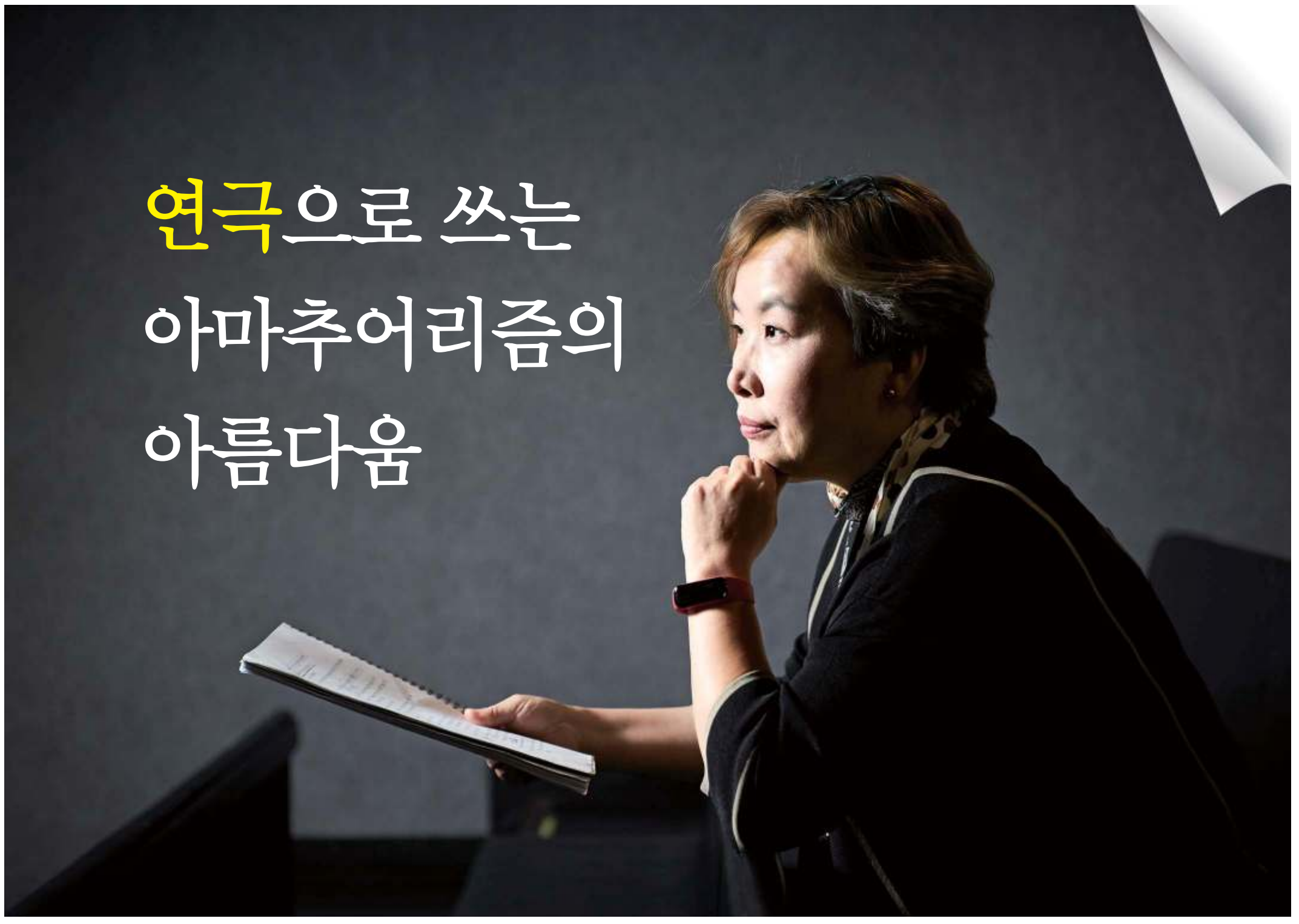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 조치 전후로 정부와 금융기관들 간 논의가 이뤄졌던 배경과 가상통과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시각과 계좌 제공 중단 양상 등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이 정부 조치와 가이드라인에 자발적으로 호응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우리 동네
다시 봄.
불편함을 견디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온
우리 동네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동네주민들 모두가 새로운 변화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기다려왔습니다
웃음꽃으로 한층 더 밝아질
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상상해 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극, 활기찬 인생 2막 위한 불쏘시개
한국 귀국 후 취업난 문턱에 절망하다
우연히 보게 된 연극교실 모집 공고가
수렁 빠진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 됐죠

'강 여사의 선택' · '말괄량이 길들이기'
평균 나이 55세 배우들과 올린 창작극
다양한 역할 체험하며 감정 표현 배워
삶의 희로애락·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연극 연출가 안은영

중년은 삶의 인터미션이자 새로운 기로에 선 시기다. 늦은 때는 없다지만 새로운 도전은 겁이 난다. 가슴 뛰는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 연극 연출가 안은영(55)도 평범한 중년들과 다르지 않았다. 연극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련도 있었으나, 연극은 활기찬 2막을 위한 불쏘시개가 됐다. 아마추어 극단을 이끄는 연출가로서 연습실에 들어설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를 만나 연극의 매력과 도전하는 중년의 삶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코로나19 이후 막을 펼치지 못한 채 굳게 닫힌 극장이 수두룩하다. 시니어 배우들과 함께 극단을 이끄는 그녀도 연출가로서 고심이 깊었다.

"아마추어 극단이라 아직 연습실과 극장이 없다. 지난해에 연습실과 극장이 문 닫으면서 한동안 참 힘들었다. 대안으로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찍거나 UCC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면서 단원들과 영상 분야로 과감히 뛰어들었다. 하지만 할수록 연극에 대한 갈증이 더 커졌다. 그래서 현재는 조심스럽지만 일전에 무대에 올렸던 '강 여사의 선택'을 바탕으로 대본을 보고 진행하는 입체 낭독극을 준비 중이다. 대본을 보고 하는 연극이지만, 80% 이상을 암기한 상태로 진행하고 실제 연극과 유사하게 음향이나 조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성의 이름을 되찾는 일

연출가로 시작한 인생 2막. 이전에는 직장 때문에 10년 넘는 세월을 미국과 멕시코에서 보냈다.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찰나, 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의 문턱을 잠시 밟았다가 돌아왔다. 그 교통사고 때문에 척추 쪽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울었다. 살아 있다는 게 기적과도 같았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심리적 절망에는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정말 무서웠다.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준비 없이 귀국했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취업도 안 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다.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심지어 삶을 비관하고 저버릴 마음도 품었었다. 귀국해서 심리적 바닥을 제대로 찍었다."

연극은 고통의 나날 속에 찾아온 멋진 반전이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에 뜬 연극교실 모집 공고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공고를 보는 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난날이 생각났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동화 '의좋은 형제'로 연극 놀이를 하던 장면이 퍼뜩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학교, 직장, 행사 등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연극을 연출하고 있었더라.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금 내 삶에 등장시키고 싶었다. '내일 죽어도 오늘은 연극 한바탕 하고 죽자!'는 마음이었다. 물론 성치 않은 몸 탓에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후회는 없다."

이를 계기로 연극교실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 '강 여사의 선택', '말괄량이가 길들이기'와 같은 창작극 2편을 무대에 올렸다. 평균 나이 55세 배우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였다. "몸을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오히려 연극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길러졌다. 버티는 힘이 생긴 것이다. 연극이 정말 좋은 재활치료가 됐다. 또한 연출가로서 중년의 목소리를 연극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 우리 사회는 중년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요구할 뿐, 정작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묻지 않더라. 이름은 있으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로 불리며 무명(無名)이 된 그녀들에게 연극으로나마 다시금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창작극 '강 여사의 선택'은 늙어가는 부모와 커가는 자녀들 사이에서 중년의 주인공이 겪는 애환과 동시에 존엄사를 둘러싼 선택에 관한 내용이다. 덧붙여 '말괄량이가 길들이기'는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달리 미혼의 중년 여성이 길들여지는 객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오디션을 통해 배필을 찾는다는 얘기로, 그 과정에서 중년 여성의 주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오롯이 중년에 의한 그리고 중년을 위한 창작극이다.

문화적 게릴라를 꿈꾸며

그녀는 2019년부터 단원들과 함께 표현하는인생연구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협동조합의 대표이자 치유적 글쓰기와 표현력UP 훈련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년들은 표현에 서툴다. 나 역시 그랬다. 표현이 서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불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연극을 바탕으로 표현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작극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면서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말로 힘들면 글로 써보게끔 한다.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다양한 표현을 익힐 기회다."

그렇다면 연출가와 대표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그녀의 희로애락은 무엇일까?

"협동조합의 대표보다 연출가란 말이 좋다. 물론 대표로서 늘 책임감을 느낀다. 조합원인 우리 단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닌다. 현실의 벽이란 게 참 무섭다. 연극을 위한 살림을 꾸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연습실에 올 때만큼은 정말 행복하다.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구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물론 서로 조금씩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나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또 설득한다. 완벽히 역할에 몰입한 배우를 보면 정말 아름답다."

자기다움의 아름다움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고 했나? 연극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열정은 인터뷰한 소극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안에는 중년을 바라보는 깊은 사유와 자신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 내공이 존재했다. 그녀에게 연극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연극을 통해 중년'다움',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 규격화된 이해가 아니라, 자기다움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을 좇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일종의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을 엿볼 수 있었다. 흔히 아마추어를 초보자로 비견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의 핵심은 가능성과 순수한 열정이다. 물론 가능성과 열정으로 해결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을 때도 있다. 하지만 삶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좋아하는 것만큼 귀한 재능은 없다. 그녀가 가진 아마추어리즘의 아름다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기대하며 마친다.

글 / 금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수기 잊은 분양시장 '알짜단지' 찾아볼까

연말 전국 주택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통상 겨울 분양시장은 비수기로 꼽히지만 내 집 마련 수요가 커지고 코로나19로 밀린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모처럼 성수기를 맞이했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연말(11~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97곳, 총 8만4994가구(일반분양 6만8012가구)로 집계됐다. 물량이 쏟아졌던 작년 동기(5만5041가구)와 비교하면 23.6%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595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7484가구, 서울 1417가구다.

전통적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에 이처럼 물량이 몰리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봄~가을 코로나19로 분양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쏟아진 잦은 부동산 대책도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부추겼다.

청약시장 열기는 올해 내내 식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분석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 아파트 평균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0.2대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019년 12.6대 1, 2020년 27대 1 등으로 청약 문턱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비사업, 택지지구 등 연말 알짜 단지가 많이 나오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막바지 분양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핵심입지 주거용 오피스텔

㈜한양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한양은 인천 청라국제금융단지 최중심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을 이달 분양한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지상 최고 47층, 3개 동, 702실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34실 △84㎡B 234실 △84㎡C 234실이다.

단지 외부에는 약 165m 높이에 옥탑 구조물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커튼월룩, 석재, 테라코타 패널 등 외벽 특화 마감재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유선형 디자인의 상가를 배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내부 설계도 시선을 끈다. 방 3개·거실 1개·욕실 2개를 갖춰 청라에서 희소성 높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용도실과 드레스룸을 제공하며 내 집 앞에 세대창고를 제공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는 7호선(예정) 신설역 시티타워역이 도보권에 있고 서울 2호선 연장 논의도 검토 중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약 69만㎡의 청라호수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해운대 오션뷰' 41층 생활형 숙박시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을 12월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지하 8층~지상 최고 41층, 전용면적 42~149㎡, 총 239실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해운대 중심 입지에 조성돼 해운대가 자랑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광안대교, 장산터널 등이 인접해 부산 시내·외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부산울산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해운대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부산국제외국어고, 해운대여고, 관광고, 기계공고 등 부산 특수학군이 밀집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도 있다.

단지는 41층 초고층으로 조성돼 조망권이 뛰어나다. 내부에는 파노라마 오션뷰 설계를 도입해 거실, 침실 등 어디서나 해운대 해변과 부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KTX나주역 도보권… '비규제 지역' 이점

GS건설 전남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GS건설은 전남 나주시 송월동 일대에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는 지하 3층~지상 32층, 18개 동, 전용면적 59~179㎡, 총 1554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54가구 △84㎡ 1,054가구 △116㎡ 328가구 △131㎡ 5가구 △132㎡ 8가구 △179㎡ 5가구다.

전남 나주시는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지역이다. 비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청약 조건도 덜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주거환경도 좋다. 단지 주변에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을 갖춘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이 있어 입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사통팔달 교통도 갖췄다. KTX나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광주 송정역까지 10분, 서울 용산역·수서역까지 약 2시간이면 닿는다. 단지 인근에 빛가람로, 13번국도 등이 있어 차량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광주시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역까지 20분대" GTX-A노선 수혜

현대건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이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메머드급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 강남권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2024년 개통 예정)이 들어선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통해 일산신도시와 상암DMC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북고양IC~남고양IC 기준)까지 20~30분대면 닿는다.

와동초·지산초·한가람중학교가 인근에 있으며 가람도서관도 가깝다. 운정신도시 내에 파주한빛고·운정고·지산고·동패고 등이 있어 고등학교 통학도 수월하다.

생태정원·잔디광장·텃밭 '자연친화' 설계

SK에코플랜트 대구 '달서 SK뷰'

SK에코플랜트가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들어서는 '달서 SK뷰'를 이달 분양한다. 달서 SK뷰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총 119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5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가구는 전용면적별로 △59㎡A형 354가구 △59㎡B형 133가구 △74㎡형 39가구다.

단지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인근에 대구인덕초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 내 장동초·장기초가 있다. 본리초·새본리중·대건중·효성중·대건고 등 다양한 학군도 형성됐다.

편리한 교통망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남대구IC와 달구벌대로도 가까워 차량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됐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앙에는 비오토피아 정원, 잔디 광장, 텃밭, 도서관 연계 쉼터 등을 하나의 공원처럼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탁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초역세권·명품학군·직주근접 '삼박자'

포스코건설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을 이달 분양한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은 지하 3층~지상 70층, 3개 동에 아파트 498가구와 오피스텔 661실 등 총 115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이미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 498가구를 제외한 오피스텔 661실과 판매시설 147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27㎡ 208실 △42㎡ 82실 △64㎡ 242실 △82㎡ 129실이다.

단지는 도보 3분 거리 내 인천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있는 초역세권으로,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으로 이동이 쉽다. 2027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완공될 예정이라 향후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도보 거리 내에 송원초, 박문중, 박문여고 등 다양한 학군이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비롯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있으며, 인하대 송도캠퍼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엔 산·학·연·병(산업·학교·연구시설·병원) 등 첨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직주근접 수혜도 기대된다.

충남 내포신도시 첫 주상복합 아파트

반도건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반도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첫 주상복합아파트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을 이달 분양한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은 충남 내포신도시 RC-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 동, 총 95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행정타운 및 중심상업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충남도서관, 마트, 병원, 우체국, 대학교(예정) 등이 반경 1㎞ 이내로 가깝다.

단지 내에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크랙&칼의 디자인을 적용한 대규모 브랜드 상가 '파피에르 내포'가 들어서 주거 편의성도 뛰어나다. 단지 옆으로 흐르는 신경천과 자미원 연못, 홍예공원 등 공원 및 녹지시설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홍북초(이전예정), 한울초, 내포초, 내포중, 홍성고가 도보 거리에 있으며, 단지 앞 학원가가 형성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은 내포신도시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 가구 4베이 설계와 판상형,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감이 우수하다.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로 선보일 예정이다.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독서실, 도서관, 영화감상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은 다음 달 7~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 정당계약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 85% 특별공급

DL이앤씨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DL이앤씨가 다음 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분양에 나선다.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 단일평형 총 822가구로 구성된다. 해당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이다.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 시행 사업으로 민영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해 가점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꼽힌다.

검단신도시는 약 1110만㎡에 7만5000여 가구로 들어서는 2기 신도시로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된다. 현재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을 마쳤고 2~3단계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된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 마곡, 여의도 등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신설 및 GTX B노선 공용화 직결운행(김포~검단~용산)도 추진 중이다.

4베이 설계 오피스텔… 채광·통풍 극대화

HDC현산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도안2-1지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한다.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형 단일면적 총 377실 규모다. 오피스텔은 4베이 중심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수납력이 우수한 펜트리 등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각 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2단지'(2560가구)와 함께 3000가구 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 분양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안신도시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게 된다.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는 우수한 주변 환경을 갖췄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동서대로와 도안대로가 연접해 있어 대전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4043가구 대단지… 둘레길 등 조경 특화

삼성물산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를 12월 분양한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49㎡ 212가구 △59㎡A 267가구 △59㎡B 74가구 △72㎡A 158가구 △72㎡B 80가구 △84㎡A 668가구 △84㎡B 606가구 △84㎡C 253가구 △97㎡ 8가구 △115㎡ 2가구 △132㎡ 3가구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세계조경가협회상 11회 수상에 빛나는 삼성물산만의 조경이 적용된다. 단지 인근 금강공원 산책로와 연계된 1.6㎞의 래미안 둘레길을 비롯해 필로티 가든 등 차별화된 조경이 특징이다. 단

지 내 경사를 활용해 조형가벽과 수경시설을 배치하고, 금정산으로의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과 경관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와 우장춘로·금강로·식물원도 인접해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대구 명문 학세권' 신흥주거타운 기대감

대우건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 효목동 일원에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총 13개 동, 전용면적 78~112㎡, 총 79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8㎡ 138가구 △84㎡ 517가구 △112㎡ 139가구다.

단지는 대구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KTX, SRT, 동대구터미널이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가깝다. 신세계백화점(대구점),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이마트(만촌점) 등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 동부중, 동원중 등이 있으며, 대구 명문 학군인 경신고, 청구고 등으로 배정도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는 총 32곳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대구역 일대는 신흥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신규 브랜딩으로 탈바꿈한 새로운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채광 간섭을 줄인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되고, 전 가구는 통풍이 잘되는 4베이 판상형 위주의 구조가 도입된다.

청주 최대 매봉공원 품은 '숲세권 아파트'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한화건설이 충북 청주시 모충동 일원에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아파트를 12월 분양한다.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은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 동, 전용면적 74~104㎡, 총 184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가구수는 △74㎡A 246가구 △74㎡B 49가구 △84㎡A 896가구 △84㎡B 366가구 △104㎡ 292가구다.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은 청주 최대 공원인 매봉공원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된다. 2023년 9월 건립 예정인 매봉공원은 여의도공원의 약 1.3배 면적에 달하는 29만5764㎡ 규모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산지형 공원'으로, 공원부지 내에는 정원, 휴게쉼터, 다수의 숲속체력단련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는 차량 이용 시 모충로, 청남로 등을 통해 청주 각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

로,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진입도 쉽다.

교육 환경도 좋다. 모충초, 운호중·고, 충북여중·고 등이 단지와 가까워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반경 3㎞ 이내에 홈플러스, 육거리시장 등은 물론 CGV,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대구2호선 내당·반고개역 '더블 역세권'

중흥건설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중흥건설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대에 들어서는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59·84·103㎡ 총 454가구 규모다. 이 중 27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대구 주요 도심인 범어와 수서구청, 죽전 등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반고개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환승역인 반월당역에서 대구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내당초, 구남중, 대구보건고 등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있다.

풍부한 녹지공간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 있는 대형공원인 두류공원은 놀이공원 '이월드'를 비롯해 야구장, 공연장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레저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근린공원, 상록 어린이공원 등 단지 인근으로 소규모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농협60주년
60th Anniversary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도 잘 삽니다.
농업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농협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농업, 농촌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NH 농협

“청소년 백신 접종이 전면등교 방역 최선의 지침”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

접종률이 등교 여부 유의미한 지표, 차별·강요로 봐선 안돼
학교당 1명인 보건교사들 ‘번아웃’ 직면… 전문인력 늘여야

“청소년 백신 접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침이라고 생각한다.”

22일 전면등교가 시작된 후 하루 확진자가 3000~4000명대로 급증하며 학생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지학〈사진〉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경기 은행중 보건교사)는 25일 ‘백신 차별’, ‘백신 강요’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백신 접종은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등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라며 “예방접종자에 대한 대응 수단이 추가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도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다”면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의 특성상 방역 대응 수단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감염병은 전문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 인식이나 상황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무엇보다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줄곧 학교의 감염병 대응 방식이 보건교육 등 소통을 중시하기보다 일방적인 지침 적용으로 일관하다 보니 각자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학교 방역 체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보건 인력을 강조했다. 현재 법률상 우리나라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가 학교당 1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도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학교 수 1만1942곳 중 실제 배치된 보건교사 수는 1만233명이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투입한 5만여 명의 방역 인력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보건 인력이 아니고 시설 소독이나 거리두기 등 생활 지도 인력”이라며 “현재 학교는 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일상적인 처치)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늦어져 보건교사가 검사 학생과 행동 요령 등을 알리고 관련 대응 전략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보건교육포럼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교 752개교의 절반가량이 발생 감시, 예방 관리, 학사 관리, 행정 관리 등 적어도 4개의 팀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할 코로나 대응을 보건교사 1명이 도맡아 하면서 번아웃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온종일 보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심폐 기능이 약한 학생들은 수시로 보건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인플루엔자, 독감도 함께 유행할 조짐인데, 여기에 더해 기저 질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처치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법정 보건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기존의 기술관료형 대응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 사회의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누구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며 매번 바뀌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응하는 참여협의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민하면서도 성찰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은 있지만 교육부 장관 고시가 안 돼 불안정한 기존의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부터 체계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인터넷신문협회 언론대상 보도부문
이투데이 손현경·김소희 기자 수상

이투데이 손현경〈사진 오른쪽〉·김소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다룬 기획보도로 인터넷신문 언론대상(보도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5일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진행된 ‘인터넷신문인의 밤’ 기념식을 열고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기사는 △코로나19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80% 폐쇄…비대면 지원 △[방치된 아이들] 지원센터 휴관에 ‘꿈’ 막혀…뒤에선 ‘이생망’ 핀잔만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등 기획 시리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 시상식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홀에서 제33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캄보디아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15년 간 현지 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해 온 헤브론의료원 김우정 의료원장이 대상인 아산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최영아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의사(의료봉사상), 김 의료원장,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대표(사회봉사상).

남주현 기자 jooh@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메타버스로 직원들과 ‘모닥불 토크’

“퇴근시간 임박해서 갑자기 자료를 달라고 하니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평일에도 여가를 즐기는 ‘저녁 있는 삶’을 꿈꿨는데 현실은 늘 사무실이에요.”

모닥불 앞에 모인 CJ대한통운 직원 20명이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과 회사 불만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강신호〈사진〉 대표이사가 25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3회째 ‘메타버스 공감 토크(Talk)’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9월부터 월 1회씩 ‘메타버스 공감 Talk’를 진행하고 있으며, 3회째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평균 연령 28.3세의 사원·대리급 직원 20명이 참여했다. 젊은 직원들의 취향에 맞춰 ‘모닥불 캠핑’ 콘셉트로 구성했으며 각자 개성에 따라 만든 캐릭터로 메타버스에 접속한 강 대표와 직원들은 OX 퀴즈, 모닥불 토크, 단체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에 함께 참여했다. 강신호 대표는 이어 즉문즉답 형식의 ‘모닥불 토크’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곽진산 기자 jinsan@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내정

카카오페이는 신원근 전략 총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원근 대표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된다.

신원근 대표 내정자는 지난 2018년 2월 카카오페이 전략 총괄 부사장으로 합류해 중·단기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구축했다. 국내외 금융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기업 투자와 파트너십 제휴, 대외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 카카오페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사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임명 △경영혁신본부장 전영민 ◇전보 △국제관광본부장 서영충 △국민관광실장 김성훈

◆**서울시설공단** △시설안전본부장 이강윤 △인사노무처장 김동수 △총무처장 권순만 △인재원장 오석 △IT전략실장 서미영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이순형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도로관리처장 박태문 △도로환경처장 정국진 △공동구관리처장 이상일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LG그룹** [㈜LG] ◇사장 승진 △하범종 사장 CFO 겸 경영지원부문장 ◇전무 승진 △정정욱 ◇상무 선임 △김경환 ◇전입 △박준성 전무 ESG팀장(현 LG화학) △안준홍 전무 전자팀장(현 LG경영개발원) △장건 전무 법무·준법지원팀장(현 LG유플러스) △조케빈 전무 미래투자팀장(현 LG화학) △이호영 상무 업무지원담당(현 LG전자) [LG전자] ◇사장 승진 △조주완 CEO 겸 CSO ◇부사장 승진 △김병훈 CTO 겸 ICT기술센터장 △이삼수 CDO(최고디지털책임자) △장익환 BS사업본부장 ◇전무 승진 △김종필 △박인성 △박희욱 △신석홍 △이동선 △장진혁 △정재철 △조휘재 △진심원 ◇상무 승진 △강용석 △권혁진 △김사녕 △김선형 △김용국 △김용태 △김의도 △김종호 △김철 △김태년 △류승호 △박영은 △손창우 △송준명 △신동훈 △신정은 △심상보 △안경모 △양정휴 △원종화 △유시목 △윤성일 △이병훈 △이재승 △이준행 △장진호 △전홍걸 △정대희 △정성한 △정재훈 △제영호 △조서린 △조성태 △차현승 △최규남 △홍순열 △황상문 [LG화학] ◇부사장 승진 △남철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전무 승진 △양선민 △이건주 △김성현 △김무용 △이규호 △한민기 ◇상무 신규 선임 △김범식 △양철호 △이종호 △정지후 △조성복 △고경덕 △곽민한 △정옥영 △형훈 △김정민 △이윤호 △이재수 △정종은 ◇수석연구위원 승진 △이충훈 △신부건 ◇수석전문위원 승진 △정운태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승진 △노세원 소형전지·개발센터장 ◇상무 신규 선임 △강경원 △이훈성 △이동형 △신기창 △박재홍 △김범재 △김정수 △신준영 △최상훈 △여상욱 △신동환 △김남호 ◇수석연구위원 승진 △김기웅 ◇수석전문위원 승진 △허양현 [LG디스플레이] ◇사장 승진 △김명규 ◇부사장 승진 △윤수영 김종우 민융기 ◇전무 승진 △신우섭 김성희 박유석 ◇상무 신규 선임 △강태욱 △김광태 △김규동 △김성곤 △김종덕 △김판열 △남한용 △배종욱 △서재협 △손기환 △안재준 △여준호 △이형정 △이후각 △장준혁 △정상훈 △정의진 △정인근 △최종섭 △최준혁 △유준석 △정우남 [LG유플러스] ◇전무 승진 △박성율 △임장혁 ◇상무 신규 선임 △강진욱 △김영준 △김현민 △박경중 △오인호 △이상진 △이진혁 [LG CNS] ◇부사장 승진 △김홍근 CAO ◇전무 승진 △조형철 △이말술 ◇상무 신규 선임 △전왕근 △김영란 △조성우 △변하석 △장민용 △임재혁 △전은경 △고영목 △나영필 ◇계열사 전입 △김대성 DT사업부 싱글렉스사업담당 [LG이노텍] ◇부사장 승진 △문혁수 광학솔루션사업부장 ◇전무 승진 △김기수 CHO ◇상무 신규 선임 △김민준 △박동욱 △성기철 △신정곤 △이광태 △이동훈 △이세진 ◇전입 △유병국 상무 [LG생활건강] ◇선임 △COO(사업본부장) 이창엽 부사장 ◇승진 △부사장 류재민 CRO/소비자안심센터장 △전무 승진 장병준 ◇신규 임원 선임 △이건화 △전현욱 △이병일 △서주완 △민경환 △이계춘 △김형호 △이희곤 [S&I코퍼레이션] ◇CEO 선임 및 부사장 승진 △이동언 ◇전무 승진 △황준오 [지투알] ◇상무 선임 △김진혁 이성재 [LG스포츠] ◇CEO 선임 △김인석 부사장 CEO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전무 승진 △정원석 CEO [LG경영개발원] ◇부사장 승진 △서동희 부사장 정도경영TFT장 ◇전무 승진 △배경훈 전무 AI연구원장 ◇상무 선임 △양성직 이화영 ◇수석연구위원(상무) 선임 △김승환 최정규 [LG연암문화재단] ◇상무 선임 △이현정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겸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김교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동우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사장 박찬복 △㈜대홍기획 대표이사 부사장 홍성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 부사장 강성현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 부사장 남창희 △롯데물산㈜ 대표이사 부사장 류제돈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김용석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부사장 조현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고정욱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이사 내정 전무 정승원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 정재학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 정현석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김진엽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상무 이형규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그룹 유통군 총괄대표 겸 롯데쇼핑㈜ 대표이사 내정 부회장 김상현 △롯데그룹 식품군 총괄대표 겸 롯데제과㈜ 대표이사 사장 이영구 △롯데그룹 호텔군 총괄대표 겸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사장 안세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부사장 정준호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최병환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부옥 △롯데지주㈜HR혁신실장 부사장 박두환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전무 추광식 △㈜씨텍 대표이사 내정 전무 강경보 △롯데GFR㈜ 대표이사 내정 상무 이재옥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상무 오일근 ◇승진 [롯데제과] △상무 김현덕 최성철 허진성 △상무보 이경재 최규상 김경수 윤여욱 [롯데푸드] △상무 박찬호 △상무보 윤덕환 최호형 김홍규 [롯데칠성음료] △상무 이양수 이남철 여명랑 △상무보 안진표 서인환 [롯데지알에스] △상무 김치만 △상무보 최용환 이권형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양시영 △상무보 곽중기 [대홍기획] △상무 이승조 △상무보 김의중 황정호 [롯데유통사업본부] △상무보 김동현 [롯데백화점] △전무 이호설 △상무 김선민 구성회 김재범 정경운 임재철 △상무보 윤우욱 강우진 윤형진 우순형 신남선 전일호 이원석 박성철 [롯데마트] △전무 김창용 △상무 신주백 △상무보 이준혁 배효권 윤병수 [롯데슈퍼] △전무 정원호 △상무 김동하 △상무보 현영훈 배대성 [롯데e커머스] △상무 김장규 △상무보 김종환 [롯데하이마트] △상무 박왕근 문병철 △상무보 박창현 김은정 [코리아세븐] △상무 김영혁 이우식 △상무보 홍준 손승현 [롯데홈쇼핑] △전무 김재겸 △상무 이용환 강재준 △상무보 정지현 전호진 [롯데컬처웍스] △상무 정경재 △상무보 김무성 [롯데멤버스] △상무보 김근수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최명호 조장락 △상무보 김태웅 권순근 권재범 [롯데정보통신] △상무 김경엽 김성환 박종표 △상무보 김양규 임종삼 곽미경 장병철 김봉세 강은교 [호텔롯데] △전무 Morten Andersen △상무 이효섭 △상무보 두경태 조창용 김지태 권정근 [롯데면세점] △상무 이상진 △상무보 노재승 한경완 [롯데월드] △상무보 김관식 김기훈 [롯데리조트] △상무보 하태홍 [롯데렌탈] △상무 김경봉 △상무보 이규필 이상엽 이광호 [롯데물산] △상무보 손유경 이윤석 [롯데상사] △상무보 이창휘 [캐논코리아] △상무보 김정현 이호성 전형준 [한국후지필름] △상무보 박찬성 [롯데캐피탈] △상무 하양호 △상무보 오용하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전무 황민재 박수성 △상무 김성권 박재철 임오훈 박경선 김용학 강종원 △상무보 박인철 조용준 박중성 최정규 김해철 이현섭 권조현 김기생 심미향 송근창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상무 김대중 양재호 한명진 △상무보 문정식 이한수 이경남 [롯데정밀화학] △상무 신준혁 권의헌 △상무보 김주용 강경하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보 노동인 [LC USA] △상무 한경조 Mark Peters [롯데엠시시] △전무 윤승호 [롯데알미늄] △상무 한충희 이상원 △상무보 백병옥 [롯데건설] △전무 김병근 △상무 김진지승렬 김상민 고용주 김태완 △상무보 이정원 박용신 이대풍 김영균 이상한 강민종 김영주 성무진 [CM사업본부] △상무보 고권석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보 안성준 [롯데벤처스] △상무보 배준성 [롯데인재개발원] △상무보 임원균 [롯데지주] △전무 임성복 정영철 김홍철 △상무 권오승 △상무보 진주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상무 △서종원 △이철승 △조성일 [더데이스터블] ◇상무 △이종승

부음

▲**최영자** 씨 별세, **강상진**(㈜코씰 대표)·**금진**·**호정** 씨 모친상, **김현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박영서**(㈜한국젬스 대표) 씨 장모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30분, 02-3410-3151

▲**장남주**(전 신상도초 교장) 씨 별세, **전창숙**(전 노량진초 교사) 씨 남편상, **장경환**(이트리즈 시스템 대표)·**동환**(중앙일보 편집데스크)·**현덕** 씨 부친상, **박경종**(알카리온 대표) 씨 장인상 = 2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2-860-3506

▲**최현숙** 씨 별세, **박경하**(MK차이나컨설팅 대표)·**영하**(KBS울산방송국 기자)·**혜정**·**혜란**·**혜진** 씨 모친상, **황경준**(전 농협은행 지점장)·**김성우** 씨 장모상, **심미경**·**변소정**(소정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씨 시모상 = 25일,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051-797-013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종전선언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평화와 화합의 제전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중요성이 다시 전 세계로 발신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물론 개최국의 입장이 있고 참여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도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고 북한이 다시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등 평화와 화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가장 주력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였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10·26 이후 표류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올림픽 유치에 다시 사활을 걸었다. 비민주적이고 정통성 기반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현대그룹 등 민관을 총동원하여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올림픽의 리허설적 성격이 강했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도 비교적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 개최는 분명 정권적 이해관계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비정통성을 스포츠로 이슈 체인지하려는 의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의 기록은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결과에 집중한 적이 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던 국가적 기회라는 선전이었다. 전두환 정부 재임기간인 1980년대에 남북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다. 1970년대 데탕트를 지나 1980년대 미소 간 신냉전이 다시 격화되고 남북 간 대결구조도 영향을 받았던 터에 남한에 다시 반공군사정부가 출범하고 무엇보다 서울 올림픽 유치는 북한에 큰 충격이었다.

10·26, 12·12 사태를 지켜보던 북한은 불안정한 우리 정세와 신군부의 입장을 떠보기 위해 1980년 1월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한 김정일 권력승계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수요와 평화 대화공세의 목적도 있었다. 한편으로 북한은 올림픽 유치와 서울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 1983년 10월 미얀마 폭탄 테러사건, 12월 다대포 무장침투 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은 주지의 사건들이다. 물론 미얀마 테러 사건 이후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1984년 9월 우리측에 수재 물자를 제공하겠다고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해빙 국면이 잠시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국회회담·체육회담 등 여러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1985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는 등의 관계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고 탈냉전의 기류 속에 다급해진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수세적인 입장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1980년대 남북관계를 새삼 꺼내려는 게 아니다.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올림픽과 연관된 남북관계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1980년대 남북관계의 중심에는 올림픽이 있었다. 서울 올림픽은 동서화합의 장으로서 곧 맞이할 냉전의 종식과 평화공존 시대 개막의 예포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온갖 테러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이슈를 선점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북방정책은 이러한 우호적 흐름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2018년, 북한의 핵개발로 평화를 위협받던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냄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해빙무드를 이끌어냈다. 2018년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체결한 6·12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바이든 미 행정부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도한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결실임이 분명하다.

다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비록 우리가 주최하는 올림픽은 아니지만 올림픽의 평화·화합 정신이 다시 한반도에 드리워졌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종전선언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평화와 화합의 제전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중요성이 다시 전 세계로 발신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물론 개최국의 입장이 있고 참여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도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고 북한이 다시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등 평화와 화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임 없는 대화이다.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된 결과가 있다면 그 역사를 다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나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진보한다.

과학 놀이터

환경불안·기후우울 시대

이난영
과학 칼럼니스트

조금 지난 얘기지만 한 남자배우가 영화 홍보를 위해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신이 항상 들고 다닌다는 만물가방을 공개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가방 안에는 컵라면이나 즉석밥처럼 그럴 만하다 싶은 물건도 있었지만 '아니 저런 걸 왜 매일 들고 다니지?'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기상천외한 내용물도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순간 미국처럼 대규모 자연재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국가에선 집 안에 생존을 위한 만물가방을 구비해 놓는 경우가 흔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 가방을 개인의 재미난 특이취향 정도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순식간에 한 지역을 집어삼키는 해일이나 지진 혹은 토네이도는 더 이상 재난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발생지역 역시 확산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원인으로 일자리나 사회안전망보다 환경을 꼽는 수치가 더 크게 나오기도 한다. 또한 호주에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기후변화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기후변화 영향을 지켜보며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넘어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는 걸 '환경(혹은 생태)불안(eco-anxiety)'이라 한다. 이 용어는 1995년 미국의 역사학자 시어도어 로작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환경불안이란 환경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 파괴된 미래의 삶을 생각할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그런데 이 불안을 겪는 이들의 심리상태는 로작 교수가 말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하다. 환경불안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분노, 슬픔,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 등이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일상을 영위하거나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불안은 기분부터 일상 그리고 관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모른 척 무시할 수가 없다. 이유는 많지만 무엇보다 환경불안 혹은 기후우울(climate grief)이 젊은 세대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9월 의학저널 란셋(TheLancet)에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베스대학교 엘리자베스 막스 교수 연구팀은 10개국 16~25세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환경불안-이 연구에서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 중 불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을 한 비율이 60%에 달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지 모를 미래 환경에 대해서만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이나 자기 후손의 행위가 이 지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도 큰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때문인지 환경불안을 겪는 젊은 성인들 중에는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말로 잘 알려진 과학저널리스트 대니얼 골만은 불안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경불안은 치료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 직면한 생태위기에 대한 합리적인 심리적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순 없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역시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는 기후우울을 앓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기자수첩

'부동산 문외한'이던 그녀가

이동욱 / 부동산부

수도권 집값이 2년 넘게 치솟으며 파죽지세로 치닫고 있다. 중간 수준의 가격대를 뜻하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마저도 10억 원을 넘은 지 오래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8월 넷째 주(0.02%) 이후 118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자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5억~8억 원으로 예년보다 올랐지만 서울에 그런 저렴한 아파트가 어디 있냐며 믿지 않는 이도 있을 정도다.

무주택자로서 집값이 올라 좋은 점은 딱 한 가지다. 집값 동향 기사 작성 시 어렵지 않게 신고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신고가를 비교하기 위해 2~3년치 실거래가 데이터를 뒤져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최근 거래가 곧 최고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도 집값 얘기만 나오면 굳은 얼굴로 열변을 토하곤 한다. 지인인 A 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생활비도 아껴가며 저축해 왔지만 집을 구할 돈은 없었다"며 "전세계약이 만료돼 다른 집을 알아보다가 제일 저렴한 곳도 마지노선을 한참 넘기는 바람에 부모님께 1500만 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문외한인 여자친구가 수도권의 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요강을 보내왔다. 전세가 무엇인지, 전매제한이 무슨 제도인지 부동산에 관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녀가 말이다. 연일 집값 하락을 자신하는 정부가 못 미더웠을까.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움이 깔렸을 것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급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신혼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서라도 사야 할지 전세를 구해야 할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정부는 숫자의 규모를 내세워 매수 심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주거상황의 불안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무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선 속도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toto@

이투데이, 말투데이

☆ 선조(宣祖) 이연(李昖) 명언

"풍신수길(豊臣秀吉)은 어떻게 생겼던가."

조선 제14대 왕(재위 1567~1608). 후궁 출신의 서자로 왕위에 오른 그의 치세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이 있었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훈구세력이 몰락하고 사림이라는 신진세력이 등장하였다. 즉위 초에는 인재를 등용해 국정 쇄신에 진력하는 한편 여러 전적(典籍)을 간행해 유학을 장려했다. 1591년 일본에 파견했던 조선통신사가 돌아와 복명(復命)하자 그가 한 말이다. 이듬해 왜군의 침입(임진왜란 1592~1598)을 받았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552~1608.

☆ 고사성어 / 신체발부(身體髮膚)

효경(孝經)의 첫머리 개종명의(開宗明義)장에 실려 있는 공자(孔子)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몸뚱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인 만큼 그것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라는 뜻. "신체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았다.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 시사상식 / 빅블러(Big Blur)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블러(Blur)는 사전적으로 흐릿해진다는 의미. 빅블러는 빠른 변화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빅블러 현상이 대두되었다.

☆ 신조어 / 어쩔티비

'어쩌라고~ 티비나 봐!'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어쩔 건데~ 어쩌라고~'의 뜻이다. '어쩔+전자제품' 식으로 쓴다. 대답이 귀찮거나 상대의 말을 무시할 때 자주 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 정치경제부 (02)799-2663 | 사회경제부 (02)799-2612 |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 금융부 (02)799-2665 | 부동산부 (02)799-2637 |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 사진영상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메타버스가 바꿀 취업 생태계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

"서울 살며 부산 기업 근무하는 시대 올 것"

"취업 시장에 퍼져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 이직자·취준생들이 최대한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더욱 더 투명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는 취업 시장에서의 역할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잡플래닛은 축적된 기업 데이터를 통해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천직을 찾아주는 채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새로운 메타버스 트렌드에 발맞춰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제공 잡플래닛

700만건 넘는 기업 데이터 보유

잡플래닛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기업이 함께 만드는 기업 정보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다. 전·현직 임직원이 평가한 기업의 장단점, 분야별 평점, 직급별 연봉 정보, 면접 경험, 복지제도별 만족도, 세부 기업 문화 등 기업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700만 건이 넘는 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5700만 건 이상의 월평균 페이지 조회 수(PV)를 기록했다. 2014년 출시해 올해로 7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잡플래닛은 이직자들 사이에서 취업 단계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황 대표는 "잡플래닛은 일반화돼 있던 사내 부조리를 최대한 견제하고 더욱더 투명하고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사내 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잡플래닛 직원들은 대부분 메타버스로 출근해 업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메타버스, 사내정치 줄이는 장점도

황 대표는 메타버스로의 트렌드 변화는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개인 간의 업무 협업이 공간에 한정돼 있지 않아 보다 자유롭고, 또 출퇴근 시간을 줄여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커뮤니케이션이 업무 기반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내 정치를 줄일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다만 단점도 명확하다. 황 대표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구동이 컴퓨터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돌리는 것이 힘들다"며 "무거운 프로그램과의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직원들 간의 인스턴트한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어, 협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 내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잡플래닛은 앞으로 서비스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사용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잡플래닛이 실험하면서 충분한 개선 사항들이 보이면 플랫폼 내부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도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취업형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의 취업 시장은 위치적인 규약 없이 인재들이 취직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회사에 원격으로 취업한다거나, 더 나아가 국가의 경계 없이 해외 시간대에 맞춰 메타버스를 통해 근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다양한 인재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해외 취업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잡플래닛 직원 대부분
메타버스로 업무·커뮤니케이션
출퇴근 시간 줄이고 협업 효율적
멀티태스킹 어렵다는 단점도

국내 넘어 국경 없는 근무 가능
온라인상 해외 취업도 증가 전망
지역에 상관 없이 우수인재 채용
HR 넘어 미래 기업의 일상 될 것

올해부터 상장 준비 본격화
23~24년 목표 순조롭게 진행
광고에만 의존하는 채용 시장
데이터 통한 맞춤형 발전 계획

게임·IT 기업들 선제적 도입 확산

황 대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들은 채용과도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며 "좋은 인재들을 위치와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확보에 있어 메타버스의 활용도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됐지만, 앞으로 일상적인 서비스들은 인사관리(HR) 쪽, 즉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저희 회사를 비롯한 여러 IT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출근이 더더욱 보편화가 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곧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시채용·이직 늘며 HR시장 확대

스타트업계 채용 플랫폼 시장을 다지고 있는 잡플래닛은 올해부터 상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미래에셋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에 필요한 재무적, 구조적인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대표는 현재 해외 시장에 다양한 HR 회사들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넘어가고, 개인들의 이직 횟수도 증가하면서 HR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는 HR 시장이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저평가돼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규모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HR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상장 목표다.

황 대표는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투자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더 탄탄하게 상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 추천"

그러면서 채용 시장에서의 포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며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잡플래닛 유저들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를 추천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 시 광고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채용 시장에서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채용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채용 시장의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개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 더욱더 경쟁력 있는 사내 문화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사설

기준금리 1%대, 가계부채 이자 급증 비상

한국은행이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올렸다. 8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금리인상이다. 이로써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방어를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지속되어온 0%대 금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커지고,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9월까지 2%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10월 3%를 넘었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인 2%를 크게 웃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추가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왔고 시장도 이번 인상을 예상했다.

금리인상이 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은은 이날 함께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4.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 그대로다.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 증대와 수출의 견조한 호조, 정부의 지원금 효과 등이 경기 회복세를 떠받칠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에 이자부담 급증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은이 집계한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이고, 카드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44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 원이나 불었다. 가계대출의 75% 가까이가 변동금리 조건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0.5%p 인상되면서, 단순계산으로 이들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6조 원 이상 늘어난다. 시장금리는 이미 큰 폭 오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 이주열 총재는 "연 1.00%의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특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충격은 결국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코로나 사태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생활자금을 빚낸 빈곤가계에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치명적이다. 경기 흐름은 여전히 불안하다. 기대만큼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들 부채의 부실 위험성은 갈수록 커진다.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뇌관이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금융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급선무다. 금리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화로 보는 세상

삶은 그렇게 지속된다, '왕십리 김종분'

왕십리역 11번 출구로 나와 걷다 보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당당히 레드카펫을 밟고 카메라 세례를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 '왕십리 김종분'의 타이틀 롤을 맡았던 김종분 할머니는 역 근처에서 50여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역 노점상이다.

영화를 보기 전, 관객의 태도는 둘로 나뉜다. 김종분 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시위 도중 목숨을 잃은 그녀의 둘째 딸 김귀정을 떠올리며 당시의 투쟁과 아픔을 회고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혹은 제목과 포스터만 보고서 어렵고 신산스런 삶을 살아 온 한 노점상 할머니에게서 여느 교양 다큐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대별될 거 같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1990년대 학생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혹자는 1987년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정점으로 이제 '잔치는 끝났다'면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발 빠르게 선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독재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었다. 특히 1991년은 유난히도 젊은 이들의 희생이 많았던 해였다.

다큐는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들을 비춰주며 시작한다. 함께 노점을 하면서 친해진 분들과 10원 내기 화투를 치거나, 빌린 돈 3만 원을 20년 만에 5만 원으로 갚아준 어느 손님을 화제로 함께 저녁을 나누며 하루를 마감하는 모습에서 푸근한 이웃의 정을 느껴보기도 한다. 영화는 그저 맘씨 좋은 할머니들의 밀착 라이프 영상으로 잠시 흐르다 이내 작은 딸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전한다.

김진열 감독은 처음에는 김종분 할머니의 '격동 80년' 삶에 초점을 맞췄다가 김귀정추모기념사업회를 만나면서 다큐의 구성을 다시 하게 되었다 한다. 카메라 롱 샷, 롱 테이크로 딸의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김종분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낸 명장면은 마침내 우리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 우리가 김종분 할머니를 지금껏 세상으로부터 지켜왔다고 하지만 실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시절에 품었던 우리들의 초심을 일깨워주고 또한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삶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넉넉함의 지혜도 전해준다.

예능에서 자주 보는 김종분 할머니의 손녀딸이 깜짝 출연하니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꼭들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노회찬 6411' '태일이'에 이어 요즘의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들의 눈을 밝혀줄 영화가 아직 극장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SAMSUNG

Windows 11 파트너

One Team, One Galaxy

새로워진 Windows 11에 최적화된 갤럭시 북으로
나의 갤럭시 라이프를 더 완벽하게

Windows 11 파트너

Galaxy Book

지금 갤럭시 아카데미의 풍성한 혜택과 함께 갤럭시 북을 만나보세요

갤럭시 아카데미 시즌 1 | 2021년 11월 18일 – 12월 31일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삼성 노트 동기화 시 네트워크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하며, 모든 기기는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삼성 노트 동기화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 Microsoft Teams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Microsoft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합니다. * 터치 스크린은 Galaxy Book Pro 360 모델에 한해 지원됩니다.